



# 코스피 5600 ‘질주’… 19만전자 ‘돌파’

시총 ‘1조 클럽’ 253곳으로  
특정업종 쏠림은 더 심해져  
코스피 3.09% 오른 5677.25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고침’하며 5600선을 넘어섰  
다. 삼성전자가 ‘19만전자’ (주가  
19만원)에 오르며 지수를 이끌  
었다. 시장 뭉치돈이 증시로 물  
리면서 시가총액 ‘1조클럽’ (1조  
원)에 이름을 올린 상장사는 253  
곳으로 늘어났다. 이제껏 가본  
적 없는 코스피 6000선이 눈앞이  
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지  
수만 쏜다’이다. 특정 업종에 대  
한 과도한 쏠림으로 국내 증시의  
구조적 취약성은 더 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  
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09% 오  
른 5677.25에 장을 마쳤다.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 호가일  
시 효력 정지)가 발동된 코스닥  
지수는 4.94% 상승해 1160.71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기관 투자자가  
1조5000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수  
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  
도체 초호황(슈퍼사이클)’에 대



코스피가 5600선 돌파한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한 기대감도 주가 상승에 한몫했  
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 거래일  
보다 4.86% 오른 19만원에 거래  
를 마쳐 최고가를 다시 썼다. 장  
중에는 19만900원까지 치솟았  
다.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

다 1.59% 상승한 89만4000원에  
마감했다. 두 기업의 시가총액  
은 1125조원, 650조원으로 늘어  
났다. 눈치 빠른 ‘스마트 머니’는 대  
형주를 사들이고 있다. 이날 기

준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상장사  
(우선주 포함)는 253곳이다. 지난  
해 238곳 보다 15개가 늘었다. 이  
같은 몸집 불리기 현상은 지수  
급등과 맞닿아 있다. 올해 코스  
피는 34.48%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코스피 6000 달성  
도 시간 문제란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  
은 최근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6000에서 7500으로 상향 조정했  
다. JP모건은 목표치를 올린 배  
경으로 메모리 슈퍼사이클과 함  
께 배당소득 분리와세를 꼽기도  
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날 “12개국 광의통화(M2)를  
합산한 글로벌 유동성은 118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국내 고객 예탁금도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내외 유동성 증가는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긍정적  
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했  
다. 향후 1년 코스피 전망치 상단  
을 7900으로 제시했다.

시장 뭉치돈도 증시로 향한  
다. 13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99조2736억원, 신용거래 용자는  
31조4767억원으로 집계됐다.

〈2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社告



###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 엿보기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4일(화)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  
즌1을 개최합니다.

저성장 지속과 내수(소비+투자) 부진으로 국내외 경제는 불  
확실성의 연속입니다. 불확실성은 경제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00세시대 현실화로 확실한 자산 설계가 절실합  
니다.

메트로신문은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주식·부동산 등 자  
산의 재설계’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와 주  
식·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강남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를  
엿볼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 주 제 :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  
- 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
- ◆ 일 시 : 3월 24일(화)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40분 ~2시)
-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 문 의 : 100세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 내란수괴 윤석열 ‘무기징역’

法,尹 등 8명 선고 공판  
계엄 등 모든행동 ‘폭동’ 속해

12·3내란 사태로 재판에 넘겨  
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무  
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2·3 내  
란 사태 이후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극연)는 이날 내란 우  
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  
열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12·12군사반란과 5·18민주화  
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  
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받은 최종형인 무기징  
역과 같은 형량이다. 윤 전 대통  
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해 선고  
내용을 직접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를 점거하거나 주요 정치인  
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도록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발  
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 및  
당시 여야 대표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을 체포하는 등 국회를 사실상  
장기간 마비시키려는 등 국헌 문  
란에 목적이 있다고 봤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를 하  
는 것 자체는 법률 위배가 아니  
나 계엄의 목적이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였다는만큼 위법  
하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계  
엄 선포, 국회 봉쇄, 포고령 공포  
등 윤 전 대통령이 행한 모든 행동  
은 내란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폭동’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 청년층 ‘쉬었음’ 47만명…李 정부의 새 과제

데이터처, 29세 이하 실업률  
전년비 0.8%p 오른 6.8%  
‘일자리 없음’ 등이 주요 사유  
60대 이상 취업자 증가 고착

청년층 고용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 ‘그냥 쉬었다’라는 통  
계 문구가 익숙할 정도로 20대  
일자리 부족은 사회의 ‘일상’이  
돼 가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60대 이상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끄는 상황이 고착화됐  
다. 반면 29세 이하 고용률 등은  
주요국 비교에서 하위권을 맴도  
는 처지다.

최근 집계에서도 부진은 지속  
됐다. 이에 청년 일자리 문제가 2  
년 차로 접어드는 이재명 정부에  
큰 정책 숙제로 제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  
에 따르면 올해 1월 15~29세 청  
년층 ‘쉬었음’ 인구는 46만9000  
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3만  
5000명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의 직격탄을 맞은 2021년 1월  
(49만5000명) 이후 가장 많다.

쉬었음은 구직 의사가 순전히  
없음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들은 ‘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  
려움’, ‘다음 일 준비’, ‘일자리 없  
음’ 등을 주요 사유로 꼽았다. 일  
할 능력이 있음에도, 양질의 일  
자리가 모자란 탓에 경제활동 참  
가를 접고 있다는 의미다.

또 1월 15~29세 실업률은 전  
년동월의 6.0%보다 0.8%포인트  
(p) 오른 6.8%를 기록했다. 청년  
층 실업률은 4년간 5.9~6.0% 사  
이를 오가다 지난달 크게 뛰었  
다. 1월 기준 2021년(9.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각성이  
더 짙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20대 일자리 중 상용직  
수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저로 내려앉았다.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  
에 따르면 올해 1월 20대 임금근  
로는 308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9000명 줄었다. 이 가운데 상  
용직이 204만2000명으로 1년 사이  
17만5000명이나 감소했다.

마이크로데이터 집계가 시작된  
2014년의 220만9000명 이후 가장  
적다. 청년층 상용직 수는 2023년  
1월(244만4000명) 정점을 찍은 뒤  
3년째 뒷걸음질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등이 어  
떠한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유럽의 사례도 등장했다. 한국  
고용정보원이 19일 펴낸 ‘해외

청년고용정책 실태분석 및 정책  
제언’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각 회원국에 청년보장제도를 강  
화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가 실업상태의 청년에게  
일·훈련 기회 제공의 보장을 선  
언하는 게 청년보장제도의 골자  
다. 실업상태 또는 학교 졸업 후  
4개월 내 일자리, 교육·훈련, 도  
제·수습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다.

고용정보원 연구진은 EU 제언  
을 따른 회원국 사례를 분석했다.

핀란드의 경우, 전국 70여 곳  
원스톱지원센터에서 30세 미만  
청년에게 교육·훈련·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후 핀  
란드의 쉬었음에 해당하는 이른  
바 청년 ‘니트’ 비중이 2015년  
11.8%에서 2023년 9.2%로 내려  
왔다. /세종=김연혜 기자 kys@

## 메트로 한줄뉴스



▲국민의힘 “李, 사법개혁 3법 거부권 행사  
해야”  
▲이 대통령 “담합행위 시장 영구 퇴출 적극 검토  
해야” /사진 뉴시스

▲靑 “남북 접경지역 긴장 고조행위 삼가고 평화  
노력 함께 하길”  
▲국힘, 23일 1차 인재영입 발표…“새로운 얼굴  
지속해서 발굴”

▲성남시장 “국토부,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물  
량제한 폐지해야”  
▲국방부 “비행금지구역 복원, 대비태세 영향 없  
도록 보완”



# WGBI 편입 앞둔 韓 국채시장 장기물 등 ‘선유입’ 기대 이하

WGBI 편입 호재에도 시장 조용  
고환율·금리 상단 등 압력 작용  
“보수적 유입 기대치 50조 내외”

오는 4월부터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 지수(WGBI)에 8개월에 걸쳐 단계 편입 되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선유입(프론트런)’ 흐름은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환율·금리 상단 환경에서 자금 유입이 지연되면 환율 안정 기대가 약해져 한국은행의 통화완화는 가능성보다 ‘속도조절’이 먼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FTSE 러셀(Russell·WGBI 운용사)은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을 2026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매월 동일 비중(8개 트랜치)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편입이 ‘한 번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월별 집행 강도와 유입 속도가 변수가 되는 구조인 만큼, 실편입을 앞둔 장기·초장기물에서 선제적 매수 흐름이 나타나는지가 첫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다만 선유입의 전형적 징후로 여겨지는 ‘장기물 듀레이션 확대’가 아직 확인

되지 않았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수 편입을 앞둔 장기·초장기물의 적극적 매수세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존에 70조~80조원대로 거론됐던 유입 기대치도 보수적으로 50조원 내외로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선유입이 약한 배경으로는 ‘환율 변동성’과 ‘주적오차(트래킹 에러) 리스크’가 먼저 거론된다. 고환율 구간에서 패시브 자금이 환차손 부담과 헤지 비용을 감수하면서 선취매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고,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로 채권형 자산에서 자금이 이탈하면서 지수추종 AUM(운용자산) 자체가 줄어 유입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논리다. 본계 자금이 편입 초기 관망세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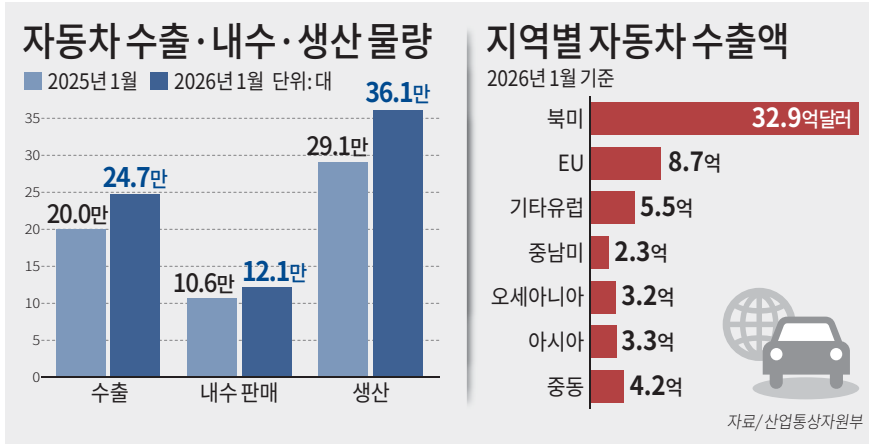
보고서는 WGBI 추종 패시브 자금의 상당 부분이 환노출(언헤지) 운용 성격을 띠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금리로 번 수익이 환율 변동에 의해 쉽게 상쇄될 수 있다고 짚었다. 원화 약세 압력이 멈추고 하향 안정화되는 시점

이 확인된 뒤 진입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 우위가 될 경우, 4월 실편입 구간에서도 ‘최소한의 비중 맞추기’ 외 추가 유입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WGBI 편입이 ‘환율 안정→금리 부담 완화→완화 여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약해지면, 한은은 경기보다 환율·금융안정(가계부채·주택시장) 변수를 먼저 점검하는 ‘속도조절’ 논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앞서 한은은 지난 1월 통화정책방향에서 “높아진 환율이 물가의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고, 환율·수급 쏠림에 따른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언급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4월 WGBI의 실편입은 ‘수급 개선의 마중물’ 역할은 하겠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금리 급락이나 환율 안정을 즉각적으로 이끌어내기에는 대외 여건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단기적인 금리 급락이나 환율 안정을 이끄는 ‘게임 체인저’보다는, 장기적인 원화 채권 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구조적 하방 지지선’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1월 자동차 수출 60.7억달러… 역대 2위

수출·내수·생산 ‘트리플 증가’

올해 1월 자동차 수출과 내수 판매, 생산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설 연휴가 2월로 늦어지며 조업일수가 늘었고,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출 호조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1월 자동차 수출액은 60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1.7% 증가했다. 이는 2024년 1월(62.1억달러)에 이어 역대 1월 중 2위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지난해 설 연휴가 1월(1.25~30)에 포함돼 조업일수가 올해보다 3일 적었던 기저효과와 함께 친환경차 수출 호조가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친환경차(전기차·수소전기차·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출은 25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8.5% 증가하며 역대 1월 중 1위를 기록했다.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42%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17억1000만달러로 85.5% 급증했고, 전기차는 7억8000만달러로 21.2% 증가했다.

수출 물량 역시 24만7000대로 23.4% 늘었으며, 이 중 친환경차는 9만2000대로 51.5% 증가했다. 전체 수출 물량에서도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37.4%로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북미 수출이 32억9000만달러로 25.7%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미

국은 26억5900만달러로 19.2% 늘었다. EU는 8억7100만달러(+34.4%), 기타 유럽은 5억5100만달러(+44.8%)로 유럽 시장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외 중남미(2억3400만달러, +34.1%), 오세아니아(3억2200만달러, +30.2%), 아프리카(4700만달러, +74.8%) 등도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아시아는 3억2500만달러로 30.1% 감소했고, 중동은 4억1600만달러로 소폭 감소(-0.4%)했다.

1월 내수 판매는 12만787대로 전년 동월 대비 14.0% 증가했다. 국산차는 9만8058대(+9.6%), 수입차는 2만2729대(+37.9%)를 기록했다. 차종별로는 쏘렌토(8388대), 스포티지(6015대), 카니발(5278대), 아반떼(5244대), 소나타(5143대) 순으로 내수 판매가 많았다.

특히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5만7584대로 48.3% 증가하며 전체 내수의 4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전기차는 1만98대로 무려 507.2% 급증했다.

생산량은 36만5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24.1% 증가했다. 트랙스(3만대), 아반떼(2만4000대), 코나(2만3000대), 스포티지(2만2000대), 팔리세이드(1만9000대) 순으로 생산이 많았다.

완성차 5사 모두 생산이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 1월 전기차 전용 설비 구축 등으로 부산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던 르노코리아의 경우 전년 3000대에서 올해 5만6000대로 무려 18배나 늘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李, ‘HMM 부산 이전’ 재확인… “곧 하겠다”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강조  
내달 HMM 주주총회 이목집중

이재명 대통령(사진)은 19일 “해수부 이전,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HMM 이전도 곧 하겠다”며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구상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선사인 HMM의 본사 이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장관의 글을 재게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재게시한 전 전 장관의 글은 이재명 정부 들어 성사된 부산 지역 현안 사업들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전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 6개월 만에 깜짝 놀랄 성과들이 있었다”며 “부산 해양수도특별법이 제정됐고, 2028년 3월 부산해사법원이 개청한다. 북극항로



범정부 추진 기구인 북극항로추진본부가 해양수산부에 설치됐다.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본사 이전은 전 전 장관 재임 시기인 지난해 12월5일 결정됐다.

이 대통령도 이를 공유하며 이른바 ‘5극 3특’ 전략에 따른 해양수도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HMM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러나 그간 노조 반발과 민영화 문제 등이 겹치며 찬반 공방이 이어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곧 한다”고 못박은 셈이다.

거기에는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보고를 받던 중 “HMM은 언제 옮긴다고 하던가”라며 “나머지 해운선사 목록을 다 뽑아 봤다. 설득해서 부산으로 옮길 곳이 있느냐”라고 물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해서인지, HMM의 대주주인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최근 해운업체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 해운협회가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본사의 부산 이전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기도 했다.

또 HMM 부산 이전에 반대해왔던 노조가 일부 부서의 이전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오는 3월 HMM 주주총회에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한 정관변경 안건을 올릴 경우, 부산 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

## “지금 안 사면 늦는다”… 포모심리 확산

>> 1면 ‘코스피 5600 질주…’서 계속

전문가들은 반도체 영업이익과 수출 실적, 세계 인공지능(AI) 수요 등을 근거로 한국 증시 ‘매수’ 신호를 유지하고 있지만, 투자 과열을 우려하며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권유했다. 쏠림이 커질수록 코스피가 특정 이슈에 과도하게 흔들리는 취약한 구조에 빠져들 수 있어서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인공지능(AI)

I) 수익성 논란 등 반도체 수익에 대한 낙관적인 흐름에 흠집이 나면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지금 안 사면 늦는다’는 이른바 포모(FOMO) 심리도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장기 투자자의 성과 인증 글이 올라오고 있다. “전세금 뺀 돈 3억원 들고 반도체에 들어간다” “삼성전자에 다 걸겠다”는 글도 잇따랐다. KB증권은

올해 전 세계 영업이익 상위 10대 기업 중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비중이 9%(1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삼성전자 메모리 출하량의 70%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업체가 흡수하고 있어 구조적 수요 기반이 공고해졌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로는 24만원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6원 오른 1445.5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기준)를 마쳤다. /신하은 기자 godhe@



# AI가 앞당긴 기본소득사회… 고용·소득 구조 대전환 논의

## 국가인공지능전략위 세미나

강남훈 “AGI 확산, 기본소득 필요”  
고용 불안 확대, 중산층 약화 경고  
과세·국가배당 재원모델·커머닝 제시  
‘햇빛소득’ 사례·데이터 주권도 거론

인공지능(AI)이 산업과 고용 구조를 재편하는 가운데, 국가차원에서 기본소득을 핵심 축으로 한 ‘AI 기본사회’ 구상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19일 IT업계에 따르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스퀘어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세미나를 열고, AI 시대의 고용 해법과 재원 조달 방안을 둘러싼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AI기본사회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그는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이기도 하다.

강남훈 교수는 “기술 혁명 자체는 일자리를 줄이지만, 이에 대한 시민·정치의 운동과 복지 국가 모델이 결합되어 고용을 창출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AI로 인한 산업혁명의 경우, AGI(인공 일반 지능)는 인간의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기본소득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된다면 AI시대에도 완전고용에 가깝게 고용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 고용의 절반 이상이 불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지난 12일 서울스퀘어 16층에서 ‘AI는 기본사회를 어떻게 재설계하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AI기본사회에 대한 발제를 하는 모습.

정한 일자리”라며 “중산층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AI에 의해 기술적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화이트칼라가 해체되면서 실업자의 대부분이 육체노동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다수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소득을 가져가는 구조라며, 이러한 대분기에서 발전 경로에 올라선 나라의 특징으로 ‘포용적 경제’를 꼽은 연구를 소개했다.

교육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강 교수는 교육뿐 아니라 연구의 역할로서도 대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고의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비판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 하에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커머닝(Commoning)’에 대해 설명하며 두 가지 모델을 제시했

다. 커머닝은 ‘공유화한다’라는 뜻으로, 모두의 것을 모두의 것으로 되돌린다는 의미다. 허버트 사이먼 모델은 모든 소득에 70% 세율로 과세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모델이다. 제임스 미드 모델은 국가가 지분 투자를 통해 얻은 배당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형태다.

그는 다보스 포럼에서 일론 머스크의 “미래에는 kWh가 화폐 단위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국내외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전환(AX)과 재생에너지 전환의 가속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시간에서 한 참석자는 전환기에 고용의 전환 준비 방식과 소득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남훈 교수는 태양광 등의 재생 에너지를 바탕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이 이미 계획과 진행 중에 있다며 예를 들었다. 영광군은 2038년에 태양광을 기반으로 1년에 300만 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여주시 구양리는 ‘햇빛소득마을’로,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그 수익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모델이다.

다른 참석자는 화폐의 개념 변화에 대해 질문했다. 강 교수는 공감한다면서

도, “어디까지나 화폐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가치이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 주권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 실현 방법과, 국제적인 사회적 펀드 조성 동향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강 교수는 “알고리즘도 공유재산”이라고 답했다. 요컨대 인터넷, 데이터, LLM 모델 등이 인류 공공의 오픈 소스로 구성되었기에 공공재로 본다는 설명이다. 그는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전환기에는 소유권과 재산권에 대한 법적 분쟁이 생긴다”며 “이 때 잘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자도생’이 심각한 현상 속에서 커머닝을 어떻게 국민에게 설득할지에 대한 참석자의 질문에는 “국민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더 많이 토론하고 대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metroseoul.co.kr

## 정부 ‘생산적 금융’ 전환 기술금융 3년 만에 반등

기술신용대출 잔액 319조1068억  
은행권, 중소·벤처 기술기업 지원 확대

은행권의 기술금융 잔액이 3년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따라 은행권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술금융은 기술력과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나 재무능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대출, 투자, 보증)하는 금융서비스다. 2014년에 도입한 이 서비스는 기업이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과 기술신용평가사(TCB)가 해당 기술의 완성도와 시장성을 평가해 대출 한도 확대나 금리 인하 등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319조10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말 302조7538억원과 비교해 16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은행별로 보면 특수은행 가운데서는 기업은행이 130조3576억원으로 가장 많은 잔액을 기록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42조8776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지방은행에서는 부산은행이 8조336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술금융잔액은 2022년 326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이어 왔다. 2023년 304조 5000억원, 2024년 302조 8000억원으로 연이어 하락했다. 이는 2022년 말부터 본격화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테크 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데다, 금융당국이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면서 은행들이 대출문턱을 높인 영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이 신성장 산업 중심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주문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난달 열린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 협의체’에서는 민간과 정책금융을 포함해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 분야에 총 1240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정책 기조 변화가 은행권의 기술금융 확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들은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관련분부를 재편해 유망기술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생산적 금융 중심의 기업대출을 확대하고 기업발굴·성장지원 등을 수행하는 ‘성장금융추진본부’를 신설하고, 첨단전략산업 전담 심사부서(첨단전략산업심사UNIT)를 운영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 고객을 위한 한화생명의 합리적 통보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무)

● 한화생명 알리미

건강할수록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이제 **무사고 전환**을 통해  
매년 **보험료를 할인받으세요** 🎁 ✨



한화생명



피트니스



건강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무)

무사고 계약 전환 제도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전환 신청시 현재 연체된 보험료가 없는 유효한 계약 ②피보험자의 무사고 기간이 변경되어 위험이 감소한 계약 ③해당 계약의 기초 서류에서 정하는 간편가입형인 계약(단 ‘간편가입형(10년)’은 제외) 혹은 해당 계약의 기초 서류에서 정하는 일반가입형 또는 건강가입형인 계약(단 ‘건강가입형(10년)’은 제외). 자세한 사항은 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특약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편가입형 상품은 일반심사보험 또는 건강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습니다.(다만, ‘간편가입형(10년)’의 경우 일반심사보험 대비 계약전 알릴의무를 일부 강화한 항목이 있어 일부 담보에서는 보험료가 낮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 내용은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 또는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일부 보장의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1년 이후 발생 시에 지급되는 금액의 50%(일부 보장의 경우 가입 후 180일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25%)만 지급합니다.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본 보험 회사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6-00425호 (2026-01-22 ~ 2027-01-21) 준법감시인확인필 CS 26-01-004

홈페이지 : www.hanwhalife.com 상담 번호 : 080.365.6363



# 명령어 두 줄로 영상 ‘뚝딱’… 콘텐츠 생태계 뿌리째 ‘흔들’

## ‘시댄스 2.0’ 영상업계 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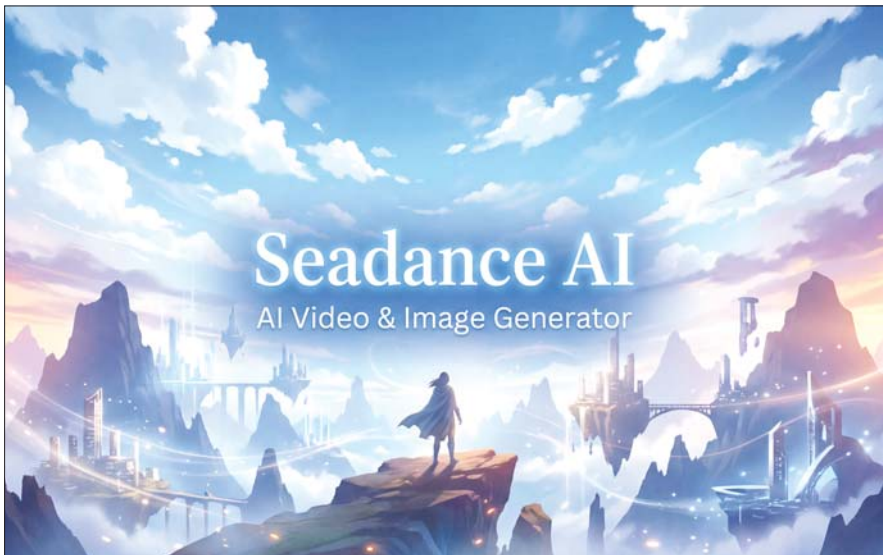
바이트댄스, 연구용에 가두지 않고 영상 편집앱 캡컷·틱톡 즉각 이식

美·日, 영화·애니메이션 IP 침해 영화협회·배우 일자리 위협 규탄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내놓은 차세대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AI) 모델 ‘시댄스(SeaDance) 2.0’이 전 세계 영상 산업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단순한 기술 진보를 넘어 저작권 무단 도용과 인력 대체라는 민감한 지점을 정면으로 타격하면서, 콘텐츠 강국인 미국과 일본은 사실상 기술 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19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 10일 시댄스 2.0이 출시된 이후 영상업계에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아일랜드 출신의 영화 감독 루어리 로빈슨이 자신의 SNS에 올린 15초 분량의 영상이었다. 시댄스 2.0으로 생성한 영상 속에는 할리우드 톱스타 톰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를 빼닮은 인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내놓은 시댄스 2.0이 압도적인 성능과 더불어 초상권·저작권 침해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시댄스

물들이 폐건물 옥상에서 격렬한 육탄전을 벌이는 장면이 담겼다.

인물의 움직임에 따라 유연하게 이동하는 카메라 위킹, 자연스러운 조명 처리, 그리고 타격 시 발생하는 관성의 법칙까지 완벽하게 구현된 이 영상은 단 두 줄의 명령어(프롬프트)만으로 제작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를 본 영화 ‘데드폴’의 각

본가 랫 리스는 “우리에게 끝이 온 것 같다”며 절망 섞인 관측을 내놓았다.

할리우드의 반발은 즉각적이고 격렬했다. 월트디즈니는 시댄스 2.0이 ‘스타워즈’와 ‘마블’ 등 자사 지식재산권(IP)을 대규모로 학습하고 무단 생성하고 있다며 바이트댄스에 권리 침해 중지 요구서한을 발송했다.

디즈니 측 대리인인 데이비드 싱어 변

호사는 “IP를 진열장을 깨고 탈취하듯 가져갔다”며 침해 행위의 고의성과 광범위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영화협회(MPA)와 배우 노조(SAG-AFTRA) 역시 성명을 통해 시댄스가 조합원들의 목소리와 초상을 무단 사용해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일본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일본 정부는 시댄스 2.0이 ‘울트라맨’, ‘명탐정 코난’ 등 자국의 핵심 애니메이션 IP를 침해했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애니메이션 캐릭터에게 공격받는 딥페이크 영상이 확산되자 일본 정부는 이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일본애니메이션필름문화연맹은 “기술의 진보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시댄스 2.0이 이토록 큰 충격을 주는 이유는 기존 모델들과 궤를 달리하는 압도적 성능에 있다. 지난해 공개된 오픈AI의 ‘소라(Sora)’나 중국의 ‘클링(Kling)’은 인물의 손가락이 뒤틀리거나 물리 법칙이 깨지는 등의 기술적 한계가 뚜렷

했다.

반면 시댄스 2.0은 영상 전반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인물과 배경의 왜곡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특히 바이트댄스는 이 모델을 연구용에 가두지 않고 전 세계 수억 명이 사용하는 영상 편집 앱 ‘캡컷(CapCut)’과 ‘틱톡’에 즉각 이식했다. 이는 전문가 영역이었던 고품질 영상 제작이 대중의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태계의 완전한 전복을 의미한다.

물론, 한계는 존재한다. 현재 시댄스 2.0으로 생성 가능한 영상은 15초 내외로 짧고, 시각특수효과(VFX) 업계 표준인 ‘언리얼 엔진’처럼 디지털 애셋을 자유롭게 추출해 재활용하는 기능은 부족하다.

논란이 계속 커지자 바이트댄스는 “시댄스 2.0이 실제 인물의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기능을 중단했으며, 지식재산권과 초상권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전기강판 시장, 탄소규제에 공정·소재서 구조 경쟁으로 확장

獨·佛·中 등 탄소배출 감축 나서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탈탄소 전략 해상풍력·태양광 등 전환 기반 마련

전기강판 수요 확대 속에 유럽 탄소 규제와 전력 조달 리스크가 커지면서 국내의 철강사간 경쟁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생산 공정·소재 기술 중심 경쟁은 전력 조달 전략과 에너지 비용 통제력까지 경쟁 변수로 편입되며 구조 경쟁으로 확장되는 흐름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재생에너지 산업 전문 매체 IWR 온라인은 지난 9일 티센크루프 스틸이 총 230GWh 규모의 전력구매계약(PPA) 4건을 체결해 독일 내 풍력·태양광 재생에너지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계약 물량은 약 7만 가구의 연간 사용량 수준으로, 연 7TWh 이상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예상된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3전기강판공장에서 생산한 전기강판 제품. /포스코

티센크루프 스틸은 글로벌 주요 전기강 제조업체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는 전기강 시장 주요 기업으로 한국 포스코, 룩셈부르크 아르셀로미탈, 중국 바오스틸, 일본 니폰스틸, 독일 티센크루프 등을 제시했다. 업계는 이들이 공정 혁신과 전력·연료 조달 구조 전환을 병행하며 탈탄소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본다. 전기강판은 탄소 규제에 민감한 핵심 인프

라 소재로,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프리미엄 가치가 기대되는 대표 제품으로 꼽힌다.

포스코는 HyREX(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 전략을 추진하면서 자체 생산 역량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병행하고 있다. 올해 준공되는 전기로(EAF) 역시 탄소 저감과 공정 전환을 겨냥한 투자로 평가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300MW급 신안 해상풍력 개발 사업에 참여해 생산 전력을 그룹 계열사 수요와 연계하는 PPA 활용을 추진 중이며, 포항·광양제철소 태양광 설비 확대와 해외 수소 공급망 구축을 통해 수소환원제철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해외 철강사들도 공정 전환과 에너지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아르셀로미탈은 프랑스 덩케르크에 연 200만톤 전기로(EAF)를 오는 2029년 가동 목표로 건설

하며 13억유로를 투입, 기존 고로 대비 탄소배출을 약 3배 줄일 전망이다.

중국 바오우시는 수소제철(HyCRO F·HyRESP)·재생에너지·탄소 포집·활용·저장(CCUS)을 결합한 전 공정 녹색 전환을 추진 중이고, 자회사 바오스틸은 잔장 제철소에 연 100만톤 직접환원철(DRI) 설비를 통합해 ‘거의 제로 탄소 생산 라인’을 구축했다. 저탄소 방향성·비방향성 전기강판은 기존 대비 탄소를 30% 이상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니폰스틸은 지난 2013년 대비 오는 2030년 CO<sub>2</sub> 30% 감축, 오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아래 자가발전 효율 개선, 비화석 연료 전환, 탈탄소 전력 구매 확대, 수소 공급망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랜드뷰리서치는 글로벌 전기강판 시장은 지난해 310억달러에서 오는 2033년 469억7000만달러로 성장할 전망

으로 내다봤다(CAGR 5.5%). 전력망 현대화, 산업 자동화, 고효율 가전 확대 등이 수요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마켓리서치퓨처는 전기강판 시장이 지속가능성 중심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과 송전망 제약은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다. 이 같은 제약 속에서 포스코는 인공지능(AI) 기반 전기강판 제조 공정 개발을 추진하며 생산 효율과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고로 중심 생산 구조에서는 탈탄소 전환이 쉽지 않고, 전기로 확대와 수소 활용에도 전력요금과 수소 공급 비용 변수가 크다”며 “수소 공급망은 기업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국가 인프라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 日, 52조 규모 ‘대미투자’ 확정… 韓, 압박 속에도 ‘국익 최우선’

정부, 대미 투자 임시 추진체계 마련 조선분야 제외 2000억弗 투자 검토

일본 정부가 360억달러(약 52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하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우리나라를 향한 투자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에 대미 투자 실무 협상단을 보내고 사전 검토에 나서는 등,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대미 투자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전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에 착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지난해 10월 28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미군기지에 정박한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왼쪽)와 함께 연설하고 있다. /AP·뉴시스

트럼프 행정부가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아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한미 관세 조인트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과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연간 200억달러 한도)와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험력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25%로 설정된 관세를 15%로 낮추기 위해 총 5500억달러(약 79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투자 대상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권

한은 미국 정부에게 있다. 거기다 투자로 발생하는 현금은 일본이 투자액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50%씩 분배하고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고 10%는 일본에 귀속된다.

사실상 불공정 협약을 체결한 셈이라 일본 내부에서도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올 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본격화되자, 일본은 1차로 360억달러(약 52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3개를 확정했다. 심해 원유 수출 시설 및 천연가스 발전 시설 건설, 산업용 다이아몬드 제조 시설 건설 등이 투자 대상이다.

일본의 대미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빠르게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현재 국회는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

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달 9일 이전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일단 정부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 이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선 분야를 제외한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집행 분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사업성 검토를 진행해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투자처를 선정하기 위함인 셈이다.

다만, 일본의 대미투자 결정으로 인한 미국의 압박이 높아지더라도, 정부는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기다릴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투자 스케줄에 맞춰, 국익을 우선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에 투자 집행 분야 검토는 국회의 특별법 처리 직후 한미 조인트팩트시트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예진 기자 syj@



금융의 모든 순간

헤아림

ㅎㅎㅎ

모두가 걱정 없이 웃을 수 있게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주니까모두를 웃게하는 금정보험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

걱정 말고  
웃어라국민과 함께하는  
농심천심

NH농협손해보험



더 알아보기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모두를 위한 금융, 함께 가는 성장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모두의 희망이 하나로 모여 따뜻한 내일로 나아갑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진심이 담긴 포용 금융으로 손님의 성장을 이어갑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증부대출

금융취약계층  
자립 지원

지역  
골목상권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금융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포용 금융 지원 •서민·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 금융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 총당금 축소·비이자 확대… 순익 2.5조 방어

## NH농협금융

작년 순이익 전년대비 2.3% 상승  
이자이익 줄고, NIM 1.67%로 하락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46% 급감

NH농협금융지주의 지난해 실적은 '이자 중심'에서 '총당금·비이자 방어'로 요약된다. 2025년 지배주주 순이익이 2조5112억원으로 전년 대비 2.3% 늘었다. 그렇지만 실적의 성격은 선명하게 바뀌었다. 이자이익이 줄고 은행 순이자마진(NIM)이 1.67%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급감과 비이자 확대가 순익을 떠받쳤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금융은 2025년 영업이익 4조896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8.6% 성장했지만, 이자이익은 8조4112억원으로 1.0% 줄었다. 금리 하락 국면에서 이자 기반 수익이 둔화한 대신, 신용비용 축소와 비이자 확대가 순익을 방어한 구조다.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 /NH농협금융

은행 본업의 마진 압력은 뚜렷했다. NH농협은행의 NIM(카드 포함)은 2024년 말 1.88%에서 2025년 1.67%로 내려앉았다. 이 같은 환경에서 NH농협은행 순이익은 1조814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순익 방어의 핵심은 신용비용 감소다. 2025년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6572억원으로 전년 대비 46.3% 급감했다. 특히 NH농협은행의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3644억원으로 62.4%나 감소해 그룹 실적 방어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다만 신용비용 축소의 '지속성'은 점검 대상이다. 그룹 고정이하여신비율(NPL)은 0.68%에서 0.63%로 개선됐다.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177.91%에서 165.98%로 하락했다. NH농협은행 적립비율도 같은 기간 214.51%에서 190.91%로 내려갔다. 건전성 지표 개선에도 총당금 커버리지가 낮아진 만큼, 2026년 신용비용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이자이익 확대가 실적 방어에 힘을 보탰다. 2025년 비이자이익은 2조2740억원으로 26.4% 늘었고, 수수료이익(2조727억원)과 유가증권·외환파생 관련 손익(1조5563억원)이 각각 15.2%, 25.7% 증가했다. NH농협금융은 비이자 중심의 포트폴리오 개선을 강조했지만, 시장 변수에 따라 해당 이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남는다.

연간 기준으로는 '방어'에 성공했지만, 4분기 흐름은 흔들렸다. NH농협금융의 4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2513억원으로 3분기(6312억원) 대비 60.2%

급감했다. 같은 기간 기타영업외이익은 62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악화했고, 비이자이익도 5471억원에서 3973억원으로 줄었다. 연간 실적을 지탱한 비이자·비경상 손익의 분기 변동성이 확인된 셈이다.

비은행 계열사 성적은 엇갈렸다. 지분 반영 후 순이익 기준으로 NH투자증권이 6079억원을 기록했고, NH농협생명(2155억원)과 NH농협손보(824억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NH저축은행은 -415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2025년 그룹 이익 기여도는 은행 64.5%, 비은행 35.5%로 전년보다 비은행 비중이 커졌지만, 저축은행 등 취약 부문의 정상화 과제도 함께 부각됐다.

NH농협금융은 "NH농협금융만의 특화된 생산자·포용금융 체계의 본격 가동으로 국내 경제 역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그룹 포트폴리오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신한은행 방카슈랑스 가입고객 '목표완주' 이벤트 진행

신한은행은 오는 4월 17일까지 방카슈랑스상품을 '신한 SOL뱅크'에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목표완주! 새해 돈 모으기 결심했다면, 황금빛 인생 프로젝트' 이벤트를 진행한다



방카슈랑스는 은행이 보험사의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금융 서비스로, 고객은 은행에서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신한 솔(SOL)뱅크'에서 보험상품 검색부터 가입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 SOL뱅크'를 통해 저축성 또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월 보험료 10만원 납입 또는 일시납 보험료 100만원 이상을 납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300명을 추첨해 'BBQ 황금올리브치킨 + 콜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경품은 5월 20일까지 가입을 유지한 고객에 한해 지급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새해 재무 계획을 세운 고객들이 '신한 SOL뱅크'에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모바일·인터넷을 비롯한 비대면 보험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지난해 항공교통량 사상 최초 100만대 넘었다

국토부, 항공교통량 전년대비 6.8% ↑  
국제선 9.4% ↑ 일평균 2778대 운항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교통량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대를 넘어섰다. 국제선 운항이 늘어나며 해외노선 선택지가 다양해지고 물류·관광 산업에도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항공교통량이 전년대비 6.8% 증가한 101만여대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하루 평균 2778대의 항공기가 운항한 것으로, 코로나19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 84만여대보다 약 20%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항공교통량 증가는 국제선이 이끌었다. 국제선 운항은 하루 평균 2160대로 전년대비 9.4% 늘었다. 특히 동남아·남중국 노선이 전체 국제선의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출국 수속을 밟고 있다. /뉴시스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중·단거리 해외노선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통과비행도 전년대비 21% 늘어 동북아 항공 허브로서의 위상도 한층 강화됐다.

반면 국내선은 하루 평균 617대로 1.6% 감소했다.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국내선 이용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공항별로는 인천공항이 하루 평균 1193대로 가장 많았다. 전년보다 2.8% 증가한 수치다. 제주공항은 487대로 0.4% 감소했고 김포공항은 390대로 0.2% 줄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글로벌 항공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지속성장을 하는 흐름 속에서 항공교통의 안정적 증가는 물류·관광·수출입 등 산업 전반과 국가 경제 활력 제고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공교통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늘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 서울집값 0.91% 상승 두달연속 상승폭 확대

서울 집값이 두 달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한강벨트 아파트가 가격이 뛰면서 전국 집값을 끌어올렸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0.28% 상승했다. 전월(0.26%)에 이어 상승폭이 확대되며 10·15 대책이 나온 작년 10월(0.29%) 수준으로 돌아갔다.

서울은 0.91% 올라 전월 대비 상승폭이 0.11%포인트(p) 커졌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1.56%로 가장 높았고 동작구(1.45%), 성동구(1.37%), 강동구(1.35%), 용산구(1.3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기(0.36%)는 용인 수지·성남 분당·안양 동안구 위주로 상승한 반면 평택시 및 고양 일산서구 등은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에 소재한 학군지와 역세권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단지 위주로 실수요 중심의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며 "매매는 외곽 소재 구축 단지 및 일부 입주 물량 과다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지만 재건축 등 중장기 개발 이슈가 있는 단지 위주로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지방)은 0.06% 올랐지만 상승률은 전월 대비 축소됐다.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이 4억2960만원, 서울이 9억8147만원이다. 중위 가격으로 보면 전국 2억7181만원, 서울 7억3958만원으로 조사됐다.

/안상미 기자

## KB금융, 1조 규모 국민성장인프라펀드 결성

150조 국가전략 인프라사업 지원  
KB국민은행·손보·라이프생명 출자

KB금융그룹은 1조원 규모의 'KB국민성장인프라펀드'를 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정부의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추진계획에 맞춰 국가 전략 인프라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조성됐다.

KB금융은 이번 KB국민성장인프라펀드에 그룹의 자본력과 전문적인 장기 투자·운용 역량을 집약시켰다. KB국민은행, KB손해보험, KB라이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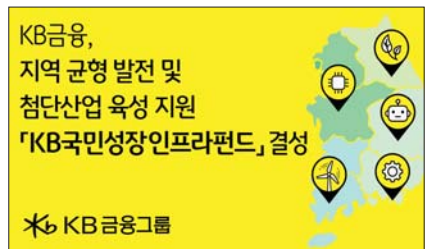
명 등 주요 계열사가 출자자로 참여해 1조원 전액을 100% 그룹 자본으로 조달한다. 펀드 운용은 국내 1호 토종 상장 인프라펀드인 '발해인프라펀드'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KB자산운용이 맡는다.

펀드는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 등에서 지난해 8월 회계기준을 명확화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구조를 채택했다.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구조를 통해 관련 평가손익의 당기 손익 반영 부담을 낮춰 대규모 펀드의 장기 투자에 따른 손익 변동성을 완화했다. 향후 민간자금이 국가 기간산업에 장기적으로 참여하는 흐름을 여는

모범적인 투자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투자 대상은 ▲지역균형성장 SOC(교통·환경·사회적 인프라, MICE 산업 등) ▲디지털 인프라(AI 데이터 센터, AI 컴퓨팅센터 등) ▲에너지 인프라(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에너지고속도로 등) ▲재생에너지 대전환(태양광·풍력발전,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등 국내 인프라 개발·건설·운영 사업이다.

특히 이번 펀드는 국민성장펀드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사업'을 주요 투자 자산으로 편입한다. 이처럼 구체적인



투자 계획 수립에 KB금융의 입증된 인프라 투자·운용 경험을 더해 단순 투자 규모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게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KB금융 관계자는 "그룹의 독보적인 인프라투자 노하우와 주요 계열사가 시장에서 증명해 온 투자·운용 역량을 결집해 1조원 규모의 단일 펀드를 장기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SK온, ESS중앙계약 과반 수주 ‘K-LFP 배터리’ 기술혁신 주효

국내 생산·소재 전면에 내세워  
‘화재 징후 예측’ 안전기술 고도화  
ESS 중심 실적반등 발판 마련

국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서 국내소재 부품업체들과 컨소시엄을 앞세운 SK온의 승부수가 통했다. 적자 탈출이 시급한 SK온이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확보, 사업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지난해 931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후 각 자대표 체제를 도입하고 ‘ESS 운영실’과 ‘ESS 세일즈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ESS 중심으로 재편했다. 수익 구조 개선과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제2차 중앙계약시장 입찰에 역량을 집중했고, 그 결과 약 1조원 규모 ESS 배터리 물량의 50% 안팎을 확보하며 반등의 계기를 만들었다. ESS는 구축·운영 실적이 축적될수록 신뢰도와 수주 경쟁력이 높아지는 사업인 만큼,

이번 국내 대형 프로젝트 수주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로 수요가 급증하는 북미 ESS 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2차 입찰은 평가 구조 변화가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비가격 평가 비중이 기존 40%에서 50%로 확대되면서 산업·경제 기여도와 화재 안전성 항목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다.

SK온은 이번 2차 입찰에서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국내 생산 확대와 국산 소재 활용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양극재는 엘앤에프, 전해액은 덕산일렉테라, 분리막은 SKIET와 WCP 등 국내 업체와 연계해 공급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충남 서산 공장에는 3GWh(기가와트시) 규모의 ESS용 LFP 생산라인을 구축, 내년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IS) 기반 배터리 진단 시스템을 ESS용 LFP 배터리에 적용해 화재

발생 약 30분 전에 이상 징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가격 평가 비중이 확대된 상황에서 해당 기술력이 경쟁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총 4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ESS 중앙계약시장은 현재까지 2차 입찰을 거쳐 약 2조원 규모가 진행됐다. 1차 입찰에서는 삼성SDI가 76%, LG에너지솔루션이 24%를 차지했고 SK온은 수주 실적을 확보하지 못했다. 2차 입찰에서는 SK온이 과반을 확보했다. 삼성SDI는 약 35%, LG에너지솔루션은 14% 수준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내 예정된 3차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앞두고 배터리 3사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향후 3차, 4차 입찰로 갈수록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 입찰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받은 만큼 다음 입찰에서는 더욱 강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경쟁 강도는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프리미엄·활용성 ‘굿’… 국민 픽업트럭 귀환

YG의 CAR TALK **카톡**

KGM ‘무쏘’

벤츠 G바겐 다이내믹서스펜션 적용  
2000만원대 합리적 가격·연비 우수

과거 국산차 시장에서 SUV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프리미엄 SUV’ 시대를 이끈 무쏘, 특히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의 엔진을 탑재하며 뛰어난 내구성까지 확보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벤츠 엔진을 단 국산차’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도심형 프리미엄 시장을 독점했다.

이번엔 2억원에 육박하는 벤츠 G바겐의 주행감성을 담은 5링크다이내믹서스펜션을 적용한 무쏘로 탄생했다. 5링크다이내믹서스펜션은 안정적 주행 및 오프로드 등 다양한 노면 환경에서 우수한 주행성능을 확보해 일상에서의 활용성을 한층 강화했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를 출발해 경기 파주시까지 왕복 약 120km 구간에서 무쏘(가솔린·디젤)를 경험했다.

첫 인상은 픽업트럭의 웅장함과 프리미엄 SUV의 감성을 담은 고급스러움을 담았다. 실내는 기존 픽업트럭 대비 확실히 고급화된 분위기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KGM 링크내비게이션이 적용돼 주행 정보 전달이 직관적이다.

주행 성능은 부족함이 없다. 디젤 2.2 LET 엔진을 얹은 모델은 묵직한 주행성을 경험할 수 있다. 최대 토크는 45kgf·m로, 가솔린 대비 약 16% 이상 높은 수치다.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차체를 밀어내는 강한 힘이 분명하게 전달된다.



KGM모빌리티 무쏘 주행 모습.

또 오르막 경사 구간에서 꾸준히 이어지는 힘은 디젤 모델 특성을 완벽하게 체감할 수 있다. 다만 고속 영역에서는 기술된 모델 대비 가속의 아쉬움이 남았다.

반면 기술된 2.0 터보 모델은 최고출력 217마력, 최대토크 38.7kg·m 성능을 발휘하며 아이신 8단 자동변속기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고속 구간에서 빠르게 반응하며 디젤과 달리 여유로운 출력을 경험할 수 있다. 실내 정숙성도 SUV 수준으로 준수하다.

무쏘의 가장 큰 장점은 합리적인 가격대와 우수한 연비 효율이다. 무쏘 그랜드 스타일 디젤의 공인 복합 연비는 9.8~10.0km/L, 일반 가솔린 모델의 공인 복합 연비는 7.6~7.9km/L다. 실제 시승 후 디젤은 12.3km/L, 가솔린은 9.2km/L를 기록했다. 판매 가격은 2WD·스탠다드 데크 기준 2.0 가솔린 모델이 2990만원부터, 2.2 디젤 모델이 3170만원부터 시작한다.

무쏘는 가격 경쟁력은 물론 뛰어난 경제성을 갖추고 있다. 픽업 트럭을 고민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첫 차로 구매하기 최적의 모델임은 틀림없다.

/양성문 기자 ysw@

## 한화오션, 캐나다 조선소·대학 협력 강화

온타리오조선소-모호크대 LOI 체결  
잠수함·해군 사업 등 수주 경쟁력 제고

한화오션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타리오조선소와 전략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한화오션은 온타리오조선소 및 모호크대학교와 3자 간 전략적 협력 의향서(LOI)도 체결하고 조선 인력 양성 허브 구축에도 합의했다.

이번 협력에 따라 한화오션은 설계·엔지니어링 자문, 생산 계획 수립, 품질 관리 체계 구축, 스마트 조선소 기반 공정 운영 등 선진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캐나다 측에 제공할 예정이다.

양사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을 포함한 향후 캐나다 해군 사업 대응을 염두에 두고 협력을 추진하며, 차세대 조선 역량을 실증하는 대표 사례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한화오션은 온타리오조선소 및 모호크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온타리오조



모호크대학 폴 암스트롱 총장(앞줄 왼쪽),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앞줄 가운데), 온타리오조선소 손 파들로 대표(앞줄 오른쪽)가 전략적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한 뒤 캐나다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오션

선소 내에 ‘조선 인력 양성 허브’를 구축한다. 향후 10~15년간의 조선소 확장·현대화 계획과 연계해 용접, 제작, 해양기계, 전기, 로보틱스, 비파괴검사 등 조선 핵심 숙련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세 기관은 ▲온타리오조선소 내 통합형 교육 캠퍼스 구축 ▲산업 주도형 고급 교육 프로그램 개발 ▲조선소 생산·확장

계획과 연계한 인력 양성 체계 확립 ▲가상현실(VR), 로보틱스, 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응용 연구 과제 공동 발굴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CPSP 사업 수주 시 한화오션은 온타리오주 내 조선 전문 교육·훈련센터 설립 가능성을 포함한 전략적 투자와 현지 업체와의 산업 협력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 최윤범 회장, 美·유럽 등 글로벌 경영 ‘구슬땀’

〈고려야연〉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나서

최윤범 고려야연 회장이 핵심광물 공급망 주도권 확보를 위해 스위스와 미국, 프랑스 등 3개국을 넘나드는 글로벌 광복 경영 활동에 나서고 있다.

최윤범 고려야연 회장은 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이사회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세션 의장직을 수행하며 공급망 다변화와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국내 기업인 가운데 유일하게 2회 연속 IEA 각료이사회에 초청됐다.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고려야연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산업계가 함께하는 핵심광물 라운드테이블 세션의 의장까지 맡았다.

최 회장은 IEA 각료이사회 본회의 참석을 계기로 파티비를 IEA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과제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 회장은 캐나다 에너지천연자원부 팀 호지슨 장관과 공동의장을 맡아 ‘정부-산업계 토론회: 핵심광물 공급망’ 세션의 개·폐회사 연사로 나섰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 대응 방안으로 통합적 산업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으며 지난달 2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애크랜틱 카운슬 주최 광물 안보 대담회에 참석한 바 있다.

/양성문 기자 ysw@

##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매각 추진

지분 15.2% 보유… 10조 이상 평가

삼성SDI가 삼성디스플레이 보유 지분 매각을 공식화했다. 투자 자원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터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자금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삼성SDI는 투자 자원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 중인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등의 매각 추진 안건을 이날 이사회에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SDI는 향후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통해 거래 상

대, 규모, 조건, 시기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한 뒤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거래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세부 사항이 결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공시할 방침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비상장사로, 삼성SDI가 보유한 지분 15.2%는 장부가 기준 10조원 이상으로 평가된다.

삼성SDI 관계자는 “거래 상대와 조건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투자 자원 마련 등을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LG AI연구원, AI 윤리 책무성 보고서 발간

LG AI연구원은 ‘책임 있는 AI’와 ‘포용적 AI 실현’을 위한 LG의 노력을 소개한 AI 윤리 책무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LG AI연구원은 지난 2023년부터 매년 AI 윤리 책무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LG전자와 LG유플러스 등 LG 주요 계열사의 AI 윤리 실천 사례를 보고서에 담아 계열사들의 AI 윤리 실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락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은 “AI 기본법 시행 등 시시각각 변하는 규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

라 고객과 사회가 안심하고 모두가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술의 안전과 신뢰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LG가 AI로 추구하려는 본질적인 가치”라고 강조했다.

임우형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은 “LG AI연구원은 기술 혁신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AI가 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불확실성의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신뢰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 전시회 열고 신제품 출시… 인테리어업계, 시장침체 극복 사활

LX하우시스 美 ‘KBIS 2026’ 참가  
표면자재 신제품 앞세워 북미 공략  
현대L&C 인테리어 트렌드 ‘케어풀’  
에코·커넥트·바이오 세가지 테마  
시몬스 롯데백 ‘웨딩 페어’ 참여  
신세계까사 ‘캠프 레스트’ 선보여

건자재·가구 업체들이 전시회 참여,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해 계속되는 시장 침체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9일 관련 기업들에 따르면 LX하우시스는 지난 17일(현지시간)부터 19일까지 미국 플로리다 올란도에서 열리고 있는 북미 최대 규모 주방·욕실 전시회 ‘KBIS(The Kitchen & Bath Industry Show) 2026’에 참가해 신규 고객사 발굴과 북미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LX하우시스는 고급화·대형화 추세인 현지 주방·욕실 트렌드를 반영한 이스톤 ‘비아테라(VIATERA)’부터 아크릴계 인조대리석 ‘하이막스(HIMACS)’, 포세린 ‘테라칸토(TERACANTO)’ 등 주방 및 욕실 마감재로 선호도가 높은 표면자재 신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아울러 이스톤·가구용보드·바닥재 등 주요 제품으로 꾸며진 ‘주방·욕실 쇼룸’ 공간과 각 제품의 소재·질감까지 직접 만



미국 올란도에서 열리는 ‘KBIS 2026’ LX하우시스 전시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마감재 매칭 체험존에서 이스톤 ‘비아테라’ 등을 살펴보고 있다. /LX하우시스

져보고 최적의 조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마감재 매칭 체험존’도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향후에도 글로벌 주요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며 해외매출 확대에 사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대백화점 계열인 현대L&C는 인테리어 트렌드 리포트를 통해 올해 인테리어 트렌드로 ‘케어풀(Care-full)’을 제시했다. 케어풀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공간 전반에 배려와 감수성을 가득 채운다는 의미를 담았다.

현대L&C는 거주·공유·치유 등 세가

지 목적에 맞는 공간에서의 ‘케어’를 각각 표현한 ▲에코 케어(나를 회복시키는 사적인 쉼의 공간) ▲커넥트 케어(정서적 유대를 나누는 공간) ▲바이오 케어(몸의 균형을 찾는 웰니스 공간) 총 세 가지 테마의 인테리어 트렌드를 소개했다. 현대L&C는 올 한해 동안 이번 인트렌드를 통해 소개한 내용을 신제품 개발에 적용하고 이를 활용한 공간 인테리어 솔루션 등을 제안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L&C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해 신제품 개발에 적극 적용하는 등 글로벌 종합

건자재 기업으로서 건자재 업계의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몬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롯데백화점에서 진행되는 ‘웨딩 페어(Wedding Fair)’에 참여해 예비부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선사한다. 행사 기간 기존 롯데 웨딩멤버스 회원들에게는 전국 28개 롯데백화점 내 시몬스 매장에서 제품 구매 시 구매 금액의 2배를 적립해 주는 ‘더블 마일리지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지난해 7월 이후 가입이 승인된 신규 웨딩멤버스 회원들은 롯데백화점 내 5개 이상의 브랜드에서 5월 이상 구매한 이력이 있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시몬스가 현재 전개 중인 ‘홈 스위트 홈(Home Suite Home)’ 프로모션 혜택도 만나볼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시몬스는 매주 수요일에는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직장인 등을 위해 퇴근 후 침대를 받을 수 있는 ‘이브닝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계열인 신세계까사는 베스트셀러 소파 ‘캠프’의 편안한 착석감과 디자인 정제성에 전문 안마 기술을 접목한 프리미엄 안마의자 ‘캠프 레스트(CAMPO REST)’를 새로 출시했다.

캠프 레스트는 까사미아 최초의 안마

기능 탑재 제품으로, 최근 소형화되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진화하는 ‘테크 가구’ 트렌드에 대응해 기획했다. 일반적인 의자처럼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클라이너 모드와 안마 모드까지 지원되는 멀티가구다.

신세계까사는 또 글로벌 디자인 거장 ‘파트리시아 우르퀴올라’와의 두 번째 협업 제품으로 ‘아우로라’ 베드룸 시리즈, 암체어, 와이드 서랍장 등도 선보였다. 앞서선 일본의 ‘미키야 고바야시’와 협업한 신규 컬렉션을 출시하기도 했다.

건자재·가구업계는 전방산업인 주택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보릿고개를 넘겼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LX하우시스는 지난해 3조178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11% 하락한 수치다. 특히 영업이익은 131억원으로 2024년의 975억원에 비해 무려 86.6%나 감소했다. 한샘은 지난해 매출 1조7445억원, 영업이익 185억원을 기록하며 직전년도보다 각각 8.6%, 40.8% 빠졌다. 현대리바트도 매출 1조5462억원(-17.3%), 영업이익 157억원(-34.6%)을 각각 기록하며 전년보다 뒷걸음질쳤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CJ대한통운, 중동 이커머스 물류시장 공략

사우디GDC 그랜드 오픈 기념식  
연면적 2만㎡·하루 2만상자 처리

CJ대한통운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우디GDC(Global Distribution Center)를 본격적으로 열고 중동 이커머스 물류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사우디GDC 그랜드오픈 기념식을 갖고 운영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CJ대한통운은 2023년 사우디 민간항공청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약 60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사우디GDC를 완공했다. 이후 안정화를 위한 시범운영을 거치며 이커머스 물류에 특화된 첨단 물류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춰 왔다.

사우디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 통합물류특구에 구축한 사우디GDC는 연면적 2만㎡ 규모로 하루 최대 2만 상자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중동 지역 권역형 풀필먼트센터다. 상품 보관부터 재고



조나단송 CJ대한통운 글로벌사업부문 대표(오른쪽에서 3번째)가 지난 12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사우디GDC 그랜드오픈 기념식에서 사우디 민간항공청, 리야드 통합물류특구 실행사, 아이허브(iHerb) 등 주요 관계자들과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CJ대한통운

관리, 포장, 통관 등 글로벌 이커머스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인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우디를 거점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쿠웨이트, 카타르 등 중동 주요 국가에 이커머스 상품을 공급하는 초국경물류 허브(Hub)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사우디GDC는 CJ대한통운이 국내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운영 역량을 해외로

전이한 대표 사례로 ‘K물류의 세계화’를 상징하는 거점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19년 국내 최초로 GDC 모델을 도입, 아이허브와 함께 인천에 첫 거점을 세워 아시아·태평양 국가에서 배송 리드타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운영모델을 구축했으며, 이 성공사례를 중동 시장에도 적용했다.

/김승호 기자

## 이병권 “전통시장서 가장 생생하게 체험” (중기부 2차관)

대전 중앙시장활성화구역 방문

중소벤처기업부가 설 연휴 이후 전통시장 물가 점검에 나섰다.

중기부는 이병권 제2차관이 19일 오후 대전 중앙시장활성화구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설 연휴 이후 소비 여건과 물가 동향에 대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장 운영 전반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했다.

대전 중앙시장활성화구역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행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사항이나 현장애로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19일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해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중기부

련했다.

이 차관은 점포들을 차례로 방문해 행사 참여 과정에서의 이용 편의, 환급 절차, 고객 유입 변화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승호 기자

## 소진공, 법인 행정서류 부담 낮춘다

‘기업 마이데이터’ 본격 도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법인 기업들의 행정 서류 제출 부담 완화에 나섰다. 소진공은 ‘기업 마이데이터’를 본격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이나 기업이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에 개시하는 서비스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와 체결한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협약’의 일환으로

기존 개인 중심에서 법인 등 기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기업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법인기업이 전자서명과 인증만으로 필요한 행정서류가 이용 기관에 전송되는 서비스다.

그동안 법인기업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정책자금·지원사업 신청 시 종이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하는 불편을 겪었지만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법인기업은 별도의 서류 발급 절차 없이 지원사업 신청과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행정 부담은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서비스 처리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호 기자

## 중기부, 협업 스타트업에 최대 1.4억 지원

‘전략과제 해결형’ 내달 19일까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 등과 협업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20일부터 3월19일까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전략과제 해결형)’에 참여할 스타트업들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개방형 혁신 수요과제 접수·평가 절차를

거쳐 카카오톡, LIG넥스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다양한 분야 기업·기관의 30개 과제를 후보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과제를 함께 수행할 스타트업 약 30곳을 지원한다.

뽑힌 스타트업에게는 최대 1억4000만원의 지원금과 협업에 필요한 컨설팅, 전문교육 등을 지원한다. 또 개방형 혁신 수요기업으로부터 과제 수행을 위한 실증 인프라, 데이터, 전문인력이 제공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우수 협업 스타트업에게는 후속 R&D 지원 및 개발기술 사업화자금도 연계해 지원한다.

참여 희망 스타트업은 K-Startup 누리집에서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전략과제 해결형’ 스타트업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전략과제 해결형’ 외에도 ‘민간 선별·추천형’에서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프로그램 30개를 선정했다.

/김승호 기자



NARA CELLAR

# 역시! 몬테스

#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네카오, 글로벌 기업 동맹으로 AI 수익화·주도권 경쟁 나서

양사 지난해 역대 최대실적 달성  
올해 AI 수익화 원년... 플랫폼 재편

네이버, 멤버십 기반 글로벌 연합  
락인 효과 극대화해 충성도 확보  
카카오, 구글·오픈AI와 파트너십

지난해 나란히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는 인공지능(AI) 주도권을 둘러싼 본격적인 전면전에 돌입했다.

19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실적 방어를 넘어 AI를 통한 수익 구조 재편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글로벌 기업과의 동맹을 확장해 생태계 선점에 나서는 모습이다. 플랫폼 경쟁은 이제 국내를 넘어 글로벌 AI 연합 구도로 재편하고 있다.

◆ 최대 실적 이후, 다음 전장은 'AI 수익화'

네이버는 지난해 매출 12조350억원, 영업이익 2조2081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AI 검색 서비스 'AI 브리핑'이 통합 검색 쿼리 비중 20%를 조기에 달성하며 검색 체질을 바꿨고, 커머스 부문에서도 AI 기반 광고 고도화



네이버 최수연 CEO와 넷플릭스 그렉 피터스(Greg Peters) 공동 CEO. /네이버

가 실적을 끌어올렸다.

카카오 역시 매출 8조991억원, 영업이익 7320억원으로 최대 실적을 냈다. 카카오톡 개편과 광고 수익 확대, AI 접목 전략이 플랫폼 성장을 견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최대 실적은 출발점일 뿐이라는 게 양사의 생각이다. 이들 두 회사는 올해를 AI 수익화 원년으로 선언하며 플랫폼 구조 자체를 AI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 카카오, 구글·오픈AI와 'AI 연합' vs 네이버, 멤버십 동맹으로 '락인 전쟁'

카카오는 AI를 전면에 내세운다. 구글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온디바이스 AI '카나나 인 카카오톡'의 안드로이드 최적화를 추진하고 있다. 구글클라우드와 텐서처리장치(TPU, 구글이 신경망 기계 학습을 위해 개발한 ASIC) 활용 논의도 진행 중이다. 향후 구글의 AI 클래스 등 차세대 폼팩터에 최적화



샘 알트만 오픈AI 최고경영자 /공동취재사진

된 인터페이스 구축 협력도 예고했다.

여기에 오픈AI와의 제휴를 통해 카카오톡 내 챗GPT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 이용자는 8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디바이스는 구글, 서비스는 오픈AI와 손잡는 '투트랙 동맹'으로 AI 생태계 확장을 노린다.

반면 네이버는 AI 고도화와 함께 멤버십 기반의 글로벌 연합으로 맞선다.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PC 게임패스, 우버, 스포티파이 등과 제휴를 맺고 구독 혜택을 확대했다.

월 4900원 멤버십 하나로 글로벌 콘텐츠와 모바일리티, 게임을 묶어 제공하는 구조다. 이용자를 생태계 안에 묶어두는 '락인 효과'를 극대화해 플랫폼 충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AI 검색과 쇼핑 에이전트 확대 역시 이 생태계 안에서 매출로 연결하는 구상이다.

◆ 생태계 선점 경쟁 본격화

양사의 전략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다. AI를 플랫폼에 깊숙이 침투시켜 일상 경험을 장악하고, 이를 매출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술 경쟁을 넘어 글로벌 동맹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 전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AI 경쟁은 모델 성능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글로벌 기업과의 동맹을 통해 얼마나 빠르게 이용자를 확보하고 수익 구조를 안정시키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더 이상 국내 플랫폼 경쟁에 머물지 않는다. AI를 축으로 한 글로벌 연합 구도 속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면전이 시작됐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AI 시대 직장인이 가져야 할 덕목은 ‘변화’”

정재현 SKT 최고경영자

신입사원·신임 팀장들과 소통  
구성원 '드림팀' 주체되어 변화 앞장

정재현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사진)가 구성원들에게 “인공지능 전환(AI) 가속화를 통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19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정재현 사장은 지난 5일 T타워에서 2026년 SK텔레콤 주니어탈린트(신입사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니어탈린트들이 각자의 인생 그래프를 발표하고 CEO의 경험을 듣는 '1년차의 드림 스토리'와 회사와 조직에 대해 궁금한 점을 CEO에게 직접 묻고 듣는 '하나되는 드림팀' 등 일정이 진행됐다.

특히 신입사원들이 AI 등 다양한 변화 속에서 잃지 말아야 할 기본과 원칙에 대해 묻자 정 사장은 “업무의 방향성과 해법은 선배들이 잘 알고 있지만, AI와 같은 새로운 도구는 여러분이 더 친숙할 수 있다”며 “새로운 툴을 활용에 적극적



으로 방향성을 제안하는 주체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직장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은 ‘변화’”라며 “회사는 구성원이 안정적

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구성원은 AI 시대에 회사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통신사업이 오래 갈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질문에는 “통신망은 AI 시대를 지탱하는 핵심망”이라며 “우리 업(業)의 본질은 ‘고객’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사장은 고객과의 신뢰를 단단히 하기 위해 보안과 통신 품질에 투자를 지속하고, 근본이 단단한 회사를 만들 것

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고객과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특정 부서만이 아닌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6일에는 이전에 위치한 SK텔레콤 인재개발원을 찾아 올해 새롭게 보임한 신입 팀장들과 만나 현장 경험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AI 전환기 리더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 사장은 “신임 팀장들과 비슷하게 CEO로서 이제 막 시작한 입장”이라며 “같은 자제로 목표와 원칙을 함께 나누는 시기로, 새로운 리더들이 변화의 대세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AI 전환기 리더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정 사장은 “올해는 AI 전환을 위한 환경을 완벽하게 조성하고, AI 전환의 가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업무를 이끄는 리더들이 주체가 되어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찾아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사장은 이번 구성원과의 대화를 통해 ‘변화’와 ‘드림팀’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그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변화해 나갈 때 조직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으며, AI 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되는 드림팀’의 주체가 되어 SK텔레콤의 변화를 이끌어줄 것을 요청했다.

/김서현 기자 seoh@



LG유플러스가 자체 개발한 AI 모델인 '익시젠(Exi-Gen)'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6 기간 중 진행되는 '레드팀 챌린지'에 참여한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직원들이 레드팀 챌린지 참여를 응원하는 모습. /LG유플러스

## LG U+, MWC서 AI 안정성·신뢰성 검증

‘글로벌 AI 레드팀 챌린지’ 참여  
익시젠 제품... 위험상황 대응력 점검

LG유플러스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기간 중 열리는 ‘글로벌 AI 레드팀 챌린지’에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

글로벌 AI 레드팀 챌린지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주관하는 AI 검증 프로그램으로, ‘MWC 26’이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MWC와 공식 공동 개최되는 개발자·디지털 인재 행사 ‘탈린트 아레나 2026’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통신사와 테크기업이 개발한 AI 모델을 대상으로 실전 검증이 이뤄진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챌린지에 자체 개발한 통신 특화 AI 모델 ‘익시젠(Exi-Gen)’을 출품해,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력을 점검한다. 약 100명의 참가자가 ‘레드팀’ 역할로 참여해 프롬프트 설계만으로 AI의 취약점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챌린지는 기술적 해킹이 아닌 대화와 프롬프트 기반 공격을 통해 AI의 정책과 안전 장치를 우회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안전장치 우회, 편향·차별, 인권 침해, 사생활 공개, 불법 콘텐츠, 허위정보, 응답 비밀관성 등 7개 카테고리에서 AI의 대응 수준을 평가한다.

특히 AI 응답의 정확성보다는 ‘해서는 안 되는 응답을 했는지’ 여부를 성공 기준으로 삼는다. 불법 행위나 인권 침해와 관련한 정보가 부정확하더라도, AI가 이를 제공했다면 취약점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생성형 AI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까지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챌린지는 총 180분간 라이브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배정된 AI 모델을 대상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결과는 3명의 심사위원이 평가하며, 성공 미션 수와 성공률을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진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참여를 통해 익시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확인된 취약점을 바탕으로 AI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통신사와 AI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AI 보안과 책임 있는 활용에 대한 논의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 CJ올리브네트웍스, 커머스 업계 마테크 지원

〈마케팅 기술〉

11번가 웹·모바일에 ‘브레이즈’ 적용  
쇼핑이력·이용패턴 기반 메시지 전달

CJ올리브네트웍스가 이커머스 플랫폼 11번가에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며 커머스 업계를 중심으로 마테크(MarTech) 사업 확대에 나섰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11번가 웹과 모바일 앱에 마케팅 자동화 CRM 솔루션 ‘브레이즈(Braze)’를 적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솔루션 도입으로 11번가는 고객의 쇼핑 이력과 이용 패턴을 기반으로 개인별로 최적화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괄적인 메시지 발송으로 인한 이용자 피로도를 줄이고, 고객 관심사와 이용 환경을 반영한 보다

정밀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

또한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 역량이 없어도 대시보드를 통해 캠페인 성과를 실

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운영 결과에 따른 개선점 도출과 마케팅 전략 조정이 가능하다. 데이터 기반 분석과 예측 모델을 활용해 고객 반응을 고려한 선제적 캠페인 운영도 지원된다.

최근 커머스 시장에서는 고객 취향과 행동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플랫폼 이용 전 과정에 걸친 개인화 마케팅과 자동화된 운영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흐름에 맞춰 마테크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커머스 플랫폼 전반에서 고객 접점별 개인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 반도체 날았지만 갈길 먼 코스피… “이익구조 체질개선을”

코스피, 일평균 2%대 변동성 확대  
증시·산업 전반 ‘반도체 착시’ 심화  
자본시장·실물경제 괴리 극복해야

한국 주식시장이 반도체를 등에 업고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시중 뭇돈은 증시로 증시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져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6000, 7000 시대로 나아가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성장을 위한 대전환’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기업은 투명한 지배구조와 주주 친화적 경영으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 ◆코스피, ‘달리는 기차’

코스피가 6000선을 바라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 환원 확대 등 자본시장 선진화 작업에 착수했고,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이라며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근절에 나선 덕분에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이라는 운이 맞아떨어졌다. 반도체가 끌고 조선, 방산, 원자력 등이 밀던 증시



ChatGPT로 생성한 ‘반도체 업종의 성장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한국 증시’ 관련 이미지.

는 최근 로봇 등 ‘피지컬 AI’ 바람까지 가세하며 꿈의 ‘6천피’ (코스피 6000)를 바라보고 있다.

김성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2025년 4분기 코스피200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양적으로 양호했다”면서도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점에 반도체 특수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밸리가 추세적이라는 분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부장은 “2월 코스피 변동성 확대는 경기,

실적, 펀더멘탈의 변화가 아닌 단기 급등에 따른 되돌림, 투자심리와 수급에 의한 과열해소, 매물소화 국면으로 판단된다”며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 ◆실물과 따르는 증시 극복 과제

하지만 실물경제에는 온기가 퍼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76%에 그쳤다. 4분기 경제 성장이 뒷걸음친 국가는 캐나다(-0.1%)와 에스토니아(-0.

012%)까지 포함해 5개국뿐이었다. 올해는 역대급 반도체 수출이라는 호재와 미국 관세 등의 돌발 변수가 혼재하고 있어 경제 성장 속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때 올해 성장률을 1.8%로 예상했으며, 이후 반도체 사이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상향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신속한 대미 투자를 촉구하며 한미 합의에 따른 관세율 15%를 25%로 높이겠다고 경고하며 불확실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과 실물경제, 수출과 내수 사이의 뚜렷한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코스피 5000 시대 안착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최근 증시 랠리를 이끄는 반도체의 ‘착시 효과’도 뚜렷했다. 지난해 성장률에서 반도체 수출의 기여도는 0.9%포인트였다. 사실상 반도체가 성장률 전체를 떠받친 것이다. 관세 파고에 자동차·기계 수출이 줄며 4분기 수출은 -2.1%를 기록했는데, 반도체가 없었다면 타격은 더욱 극심했을 것이다.

산업 생산이 늘었지만, 반도체·전자부품을 뺀 제조업 생산은 뒷걸음친 것

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제조업 생산지수는 1년 전보다 1.7% 상승했다. 그러나 반도체·전자부품을 제외한 제조업 생산지수는 1년 전보다 0.3% 하락했다.

이런 과도한 반도체 의존은 우리 증시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AI 거품론’이 현실화하기라도 하면 시장 분위기는 한순간에 차갑게 식어버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한국 증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코스피 주기순자산비율(PBR)은 1.8배 수으로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5.4배), 일본 닛케이 등 주요 증시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이익을 내는 구조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영익 전 서강대학교 교수는 “코스피 6000·7000이라는 숫자를 논하기에 앞서, 현재 지수 수준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익 구조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며 “지수가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기업 비중이 줄고, 경쟁력 있는 기업의 비중이 확대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거래소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 퇴출”

실질심사 대상 확대, 개선기간 축소  
한계기업의 시장 잔류 기간 최소화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장기간 누적된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낸다. 실질심사 대상 확대와 개선기간 축소를 핵심으로 한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나서며, 통합·일괄 심사 체계 도입과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한계기업의 시장 잔류 기간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통합 및 일괄 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심사 대상 확대와 개선기간 축소 등 실질심사 기능을 강화해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코스닥시장은 상장폐지 기업이 크게 늘고 상장폐

지 소요기간은 단축했으나, 투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더 신속한 한계기업 퇴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실질심사를 통한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기업은 23개사로 지난 201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실질심사 기업의 상장폐지 소요기간도 평균 384일로 크게 단축됐다.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코스닥시장 신뢰 회복·활성화 기조와 지난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라 상장폐지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실질심사 조직 확충으로 ‘통합 및 일괄 심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은 지난 9일 상장폐지 담당

부서에 기획심사팀을 신설해 심사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했다. 최근 실질심사 기업 증가에 따른 심사 업무의 지연을 방지하고, 지배주주가 동일한 복수기업이 실질심사대상이 될 경우 통합심사를 시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퇴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개선기간 중인 실질심사기업에 대한 개선계획 이행 점검을 강화해 상장적격성 회복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시장 조기 퇴출을 추진한다. 개선기간 중 중간 점검을 강화해 개선계획을 미 이행하거나 영업 지속성, 계속기업 존속 능력 등이 상실됐다고 판단될 때에는 개선기간 종료 전이라도 퇴출 여부를 조기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선기간 검증도 엄격하게 관리해 시장 잔

류기간 단순 연장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제도 손질도 이뤄진다. 기업 부실과 시장건전성 저해 행위 등 관련 실질심사 대상 사유를 확대하고, 부실기업 퇴출 신속화를 위해 개선기간을 축소한다. 현행 실질심사 사유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과 불성실공시 요건을 강화하고, 최대 1.5년까지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부실기업 적시 퇴출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신설한다. 코스닥시장 본부장(단장), 코스닥 상장폐지 담당 상무(간사) 및 실무반(상장관리부), 지원반(코스닥시장부 및 상장부, 공시부)으로 구성된다. 집중관리단은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직접 주관하며, 상장폐지 제도 등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 미래에셋자산운용 배당커버드콜액티브 월 최대 2% 특별분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올해 상반기 매월 최대 2% 수준의 특별 분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상품의 지난해 하반기 수익률은 32.85%로 비교지수인 코스피200 커버드콜 5% OTM 지수(25.77%)를 웃돌았다. 올해 1월 분배율은 1.93%를 기록했으며 연초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는 1000억원을 넘어섰다.

해당 ETF는 지난해 7월부터 매월 말 최대 2%의 특별분배 정책을 시행해왔다. 운용 성과를 기반으로 분배율을 결정하는 구조로 올해 상반기에도 특별 분배를 이어갈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개인 간 금거래, 세탁 통로 악용사례 주의

### 금감원 Q&A

사기범, 본인확인 요청 비협조적  
상대방 구매이력·신뢰도 확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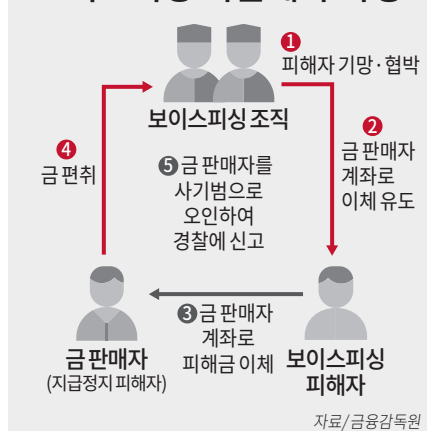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실물 금 거래를 악용해 자금세탁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금값 상승으로 온라인 거래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금 거래가 활발해진 틈을 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거래대금으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구매자로 가장한 사기범과 금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소

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경우, 금 판매자의 계좌가 사기범의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환금성이 높은 고액 자산을 주요 표적으로 삼습니다. 검찰이나 금감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인 뒤, 정해진 시간에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해두고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금 판매자를 물색하는 방식입니다. 금과 같이 최근 가치가 급등해 거래가 활발한 자산에 접근한 뒤, 별도 가격 협상 없이 가액의 금을 한 번에 구매하겠다고 제안해 판매자의 경계

###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과정



심을 낮추기도 합니다.

이들은 대면 거래 전 ‘예약금’을 보내겠다고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실제 금을 전달받는 시

점에 맞춰 피해금이 판매자 계좌로 입금되도록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사기범들은 본인확인 요청에 비협조적이며, 거래 전후 판매자에게 게시글을 내리거나 ‘숨김’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금 편취 이후 피해자가 범죄 신고를 하게 되면 판매자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의심받아 계좌가 동결되고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개인 간 금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의 구매 이력과 신뢰도를 확인하고, 계좌번호 공유를 피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구매자가 거래 전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하거나 본인확인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정윤 기자

## 신한투자증권 조각투자 발행시장 7곳과 MOU 체결

신한투자증권은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의 조각투자·장외거래소 예비인가 획득에 맞춰, 넥스트레이드 및 주요 조각투자 7개사와 ‘조각투자 발행·유통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향후 개설될 조각투자 유통시장의 핵심 참여자들이 발행과 유통, 결제를 아우르는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실물자산 기반 혁신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하은 기자



# 코트라, 60개국 유력 유통망과 K-소비재 수출 플랫폼 구축

86개국 132개 해외조직망 활용  
‘1무역관 1유통망 협력사업’ 확대  
화장품·식품·패션 등 소비재 중심  
현지 트렌드 맞춤형 유망제품 발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전 세계 60개국 유력 유통망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K-소비재 수출 플랫폼을 본격 확대한다. 해외마케팅부터 인증, 물류까지 아우르는 ‘소비재 수출 종합지원’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코트라는 19일 해외 86개국 132개 해외조직망을 활용해 ‘1무역관 1유통망 협력사업(1무 1유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각 해외 무역관이 현지 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사 전경.

향력 있는 유통망을 발굴해 국내 소비재 기업의 입점과 판촉을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까지 50개국 298개 유통망과 협력한 데 이어, 올해는 협력 대상을 60개국 336개 유통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화장품·식품·패션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을 중심으로 현지 트렌드에 맞는 유망 제품을 발굴하고, 구매상담 우선권과 계약 지원은 물론 입점 이후 온·오프라인 홍보까지 연계해 ‘수출 직결’ 성과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코트라가 추진 중인 1무 1유 사업은 특히 신흥시장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필리핀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초고형 마트 체인 랜더스(Landers)와 정기 입점 체계를 구축했고, 방한 구매상담회를 통해 7개 기업이 입점에 성공했다.

칠레에서는 중남미 1위 온라인 유통

망 메르카도리브레(Mercado Libre)와 협력해 ‘한국제품 전용관’을 개설, 10개 기업이 첫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코트라는 입점에 그치지 않고 ‘수출→입점→판촉(재고소진)→추가주문’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확장할 계획이다. 사후 팝업쇼케이스, 라이브커머스,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연계해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외마케팅, 인증, 물류 전반에서 K-소비재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

올해 코트라는 1무 1유 사업을 포함해 소비재 해외마케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K-콘텐츠와 연계한 종합 마케팅 행사인 한류박람회(6월), 하노이(9월) 열리고, 신흥국 유통망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재 쇼케이스 전시상

담회 ‘K-라이프스타일’도 중국과 멕시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인증·물류 지원도 강화된다. 뉴욕, 하노이 등 20개 무역관에 ‘소비재 인증지원 데스크’를 신설해 국가별 인증·라벨링 규제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현지 전문 컨설팅사와 협업해 취득 절차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 해외공동물류센터 중 소비재 특화 거점을 지정해 수입통관, 역직구, 항공운송 등 물류 서비스를 확대한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소비재는 K-컬처 확산과 선순환을 일으키며 수출 품목 다변화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는 전세계 유통망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K-소비재 수출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근로자 인권·안전 최우선… 현장중심 지원” aT, 美서 김치담그기 K-푸드 급식행사

박서홍 농협중앙회 신임 부회장  
취임식 대신 현장방문 공식일정  
농촌 인력난 해소·시설안전 점검

농협의 박서홍 신임 부회장이 ‘현장중심의 경영’을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농업인 실익 증진이라는 농협 본연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즉각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9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박 부회장은 지난 13일 별도의 취임식 대신 농촌 인력난 해소 및 겨울철 시설안전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먼저 경기 안성의 고삼농협을 찾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그는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력 부족은 농업 경영비 상승에 직결되는 만큼, 사업을 지속 확대해 농가 부담을



박서홍 농협중앙회 부회장(왼쪽)이 13일 경기 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찾아 현장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실질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근로자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해, 농업인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농협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향후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전국적 확대와 농촌 실익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박 부회장은 또 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방문해 안전 사각지대를 점검했다. 특히 지게차 전기충전소와 입·출고장 등 화재 취약 구역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는 취임 메시지를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 방향으로 ▲정부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자체 혁신을 통해 실질적 성과 창출 ▲농심전심운동 전개를 통한 농업가치 확산 ▲목표 손익 달성을 통한 경영안정 기반 강화 ▲노사 간 격의 없는 소통으로 건 강한 조직문화 조성 등을 제시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美 공립고등학교서 행사 열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미국 뉴욕에서 김치 담그기 체험 및 K-푸드 급식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0일(현지 시간) 맨해튼에 소재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학생과 교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19일 aT에 따르면 이는 미국 정부가 1월7일 공개한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에 김치(kimchi)를 장내 미생물 건강을 위한 권고식단으로 포함한 데 따른 행사다.

이 학교 11학년생 알렉스는 “김치가 매운 음식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직접 만들어보니 샌드위치나 햄버거·타코에도 잘 어울리는 음식인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수학교사 에밀리 켄 씨는 “김치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가깝게 느껴졌고, 앞으로 아이들에게 몸에 좋은 김치



지난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김치 담그기 체험 및 K-푸드 급식행사

/aT

를 자주 먹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치담그기 체험 후에는 밥과 김치를 비롯해 불고기와 잡채, 모듬전 등으로 구성된 K-푸드 급식 도시락이 학생들에게 제공됐다.

12학년생 제이든 학생은 “김치를 직접 담가보니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 이런 급식을 매일 먹고 있는 한국 학생들이 부럽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기후부,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 18곳 선정

아스콘 업종 등 사업장 입지 지역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 대상지 18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사업이다.

대상지는 ▲서부산스마트밸리(부산) ▲성서산단·달성1차산단(대구) ▲하남산단(광주) ▲대전산단(대전) ▲고연공업지역(울산) ▲반월시화국가산단·청산대전산단(경기) ▲황성군·인제군 소재 개별입지(강원) ▲영동군 법화리 및 단양군 단양로(충북) ▲천안시 소재 개별입지·송산2산단(충남) ▲정읍시 소재 개별입지(전북) ▲포남공단(경북) ▲상평산단(경남) ▲금능농공단지(제주) 등이다.

올해는 오염 우심지역뿐만 아니라 민원이 빈번한 아스콘 업종과 석회 및 플라스틱 제조업종 등의 사업장이 개별적으로 입지한 지역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 지원사업은 주민 생활 지역과 인접한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지난 14일 오전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

/뉴시스

대상이다. 사전 기술 컨설팅,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개선, 사후 모니터링 등 전주기 집중 관리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대상 지역의 악취 실태조사 및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정밀 대기질 조사를 실시한다. 또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와 IoT 측정기기 기반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개선 효과를 지속 관리하고, 지역

대기질 전·후 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지역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원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7.7% 저감됐다. 대기 중 초미세먼지(PM10, PM2.5) 농도는 21%~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산업단지 중심 지원에서 생활권 인접 개별사업장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해 주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해수부, 해외시장 진출 물류기업 지원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공모

해양수산부가 ‘2026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물류기업 지원이 목적이다.

선정된 물류기업에는 해외진출 타당성 분석을 비롯해 현지 조사 소요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해수부는 지난 2011년부터 연간 10개 내외의 물류기업을 지원해 왔다. 물류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지원금액을 높이고 해외 진출 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의 경우 지원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해외시장 조사·컨설팅’의 한도는 기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물류기업이 현지에 진출한 이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법무·세무 등 외부 자문·용역을 받는 경우에도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를 통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부담이 줄어들고, 타당성 분석의 전문성 역시 강화돼 해외투자 위험 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해수부는 보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털 누리집에서 모집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을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달 5일 개최 예정인 해외사업 세미나(해수부·부산항만공사 주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국제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수출입 물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해외 물류거점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물류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과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건강창업의 모든 것!



대한홍삼(주)

## BH

Since 1996

##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햅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 BH 대한홍삼 [주]

www.koreahongsam.co.kr

### 창업문의 : 1522-7585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Since 1996  
**햅터그룹**  
Haetter Group

(주)햅터  
(주)햅터방송\_브레인TV  
(주)햅터라이프\_햅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 서울시, 강북횡단 지하도로·산단 조성 등 16조 집중 투자

##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 추진

고속도로 지하화로 통행속도 개선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등 구상

서울시가 16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강북 지역 교통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산업·일자리 거점을 조성하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을 본격 추진한다. 교통 인프라 혁신을 출발점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연결해 강북 전역의 도시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제도 개선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고, 강북을 서울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교통·산업·도시개발을 연계한 중장기 전략으로, 강북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교통망·산업 거점 조성에 16조 투입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은 국고보조금과 민간투자 6조원, 시비 10조원 등 총 16조원을 강북 지역에 전략적으로 투입해 교통망을 혁신하고 산업·일자리 거점을 조



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강북의 접근성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간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 현금과 공공부지 매각 수입 등을 재원으로 ‘강북 전성시대 기금(가칭)’을 새로 조성한다.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기금은 강북권 교통 인프라

구축에 우선 투자된다. 이와 함께 철도·도로 등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강북권에 5조2000억원 규모의 중장기 재정 투자를 병행해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 ◆강북횡단 지하도시 고속도로 건설

서울시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 1.0’에 이어 교통 인프라 구축과 산업·일자리 확충을 포함한 총 12개 사업을 추가

해 강북 대개조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핵심은 강북 교통 체계 전반을 혁신하는 것이다.

내부순환로부터 북부간선도로를 잇는 20.5km 구간에는 왕복 6차로 규모의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한다. 지하화로 평균 통행속도를 개선하고, 기존 고가도로 철거로 확보되는 지상 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편한다. 동부간선도로 역시 월계IC부터 대치IC까지 15.4km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해 동남·동북권 간 이동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분야에서는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위한 경제성 분석을 진행하고, 우이신설연장선과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등을 연계해 강북권 교통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한다. 우이신설연장선은 총사업비 4690억원을 투입해 솔밭공원역에서 방학역까지 3.93km, 정거장 3개소를 신설해 2032년 개통 예정이다. 동북선은 총 사업비 1조7228억원을 투입해 왕십리역부터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내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다.

### ◆“한국 성장을 이끄는 핵심축으로”

서울시는 강북 전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과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등 새로운 도시개발 모델도 도입한다. 주요 거점에는 상업·업무·주거 기능을 집약하고, 간선도로 축을 따라 개발 활력을 확산해 강북 전역을 하나의 성장권역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동북권에서는 창동·상계 일대를 첨단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단지와 문화시설이 결합된 신성장 축으로 조성한다. 서북권은 DMC 랜드마크 부지와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이전 부지 등을 연계 개발해 첨단산업 국제교류 공간으로 육성한다. 도심권은 세운지구와 서울역 북부역세권, 용산서울코어 등을 업무·주거·문화 기능이 결합된 랜드마크로 재편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뒤 교통과 산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새로운 강북을 만나게 될 것”이라며 “16조원의 재원을 집중 투자해 강북을 대한민국 다음 성장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서울대 자연계 절반, 의·약학 병행 지원

전체 36%, 메디컬 계열 동시 선택  
인문계 수험생도 3명 중 1명 지원

2026학년도 정시에서 서울대 자연계열 지원자 2명 중 1명 가량이 타 대학 의·약학계열에 동시에 지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병행 지원은 자연계에 그치지 않고 인문계 최상위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진학사가 2026학년도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가운데 서울대 지원자(예체능 제외) 3028명의 타 대학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지원자의 36.0%가 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 등 의·약학계열 모집단위에 동시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계열 전반에서 의·약학계열 병행 지원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6학년도 정시에서 서울대 자연계열 지원자가운데 45.4%가 타 대학 의·약학계열에 동시에 지원해, 2명 중 1명에 가까운 수준

이었다. 병행 지원 분야는 의대가 64.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약대(17.5%), 수의대(6.5%)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흐름은 자연계 전체를 넘어, 의·약학계열을 제외한 이공계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됐다. 서울대 공과대학과 자연과학계열 등 이공계 모집단위에 지원한 수험생들 가운데에서도 의·약학계열 병행 지원 비중은 높았다. 공과대학 광역 지원자의 64.8%가 타 대학 의·약학계열에 지원했으며, 전기·정보공학부(60.2%), 수리과학부(55.0%), 화학생물공학부(53.1%), 첨단융합학부(52.7%), 생명과학부(52.2%) 등 주요 모집단위에서도 과반이 의·약학계열에 동시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흐름은 인문계열에서도 확인됐다. 인문계열 지원자 가운데 20.9%가 의·약학계열에 지원서를 제출했으며, 인문계 모집단위를 별도로 선발하는 한의대 지원 비중이 57.1%로 가장

높았다. 의대 지원 비중도 22.3%에 달했다.

특히 경영대학(37.2%)과 경제학부(35.0%) 등 인문계 최상위 모집단위에서는 지원자 3명 중 1명 이상이 의·약학계열을 동시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메디컬 계열 선호가 특정 계열을 넘어 최상위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이번 자료는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의·약학계열 선호 현상이 견고함을 보여준다”며 “문·이과 통합 수능 체제하에서 인문계열 수험생까지 이러한 흐름에 합류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7학년도에는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의대 선발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최상위권 수험생의 ‘서울대 vs 메디컬’ 병행 전략은 더욱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 외국인학생 생활적응 돕는 한국어책 개발

서울 남부교육지원청, 학교 보급

서울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은 중도입국 이주배경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담은 지역맞춤형 한국어 익힘책 ‘뽀뽀뽀 학교생활 한국어’를 개발해 20일 관내 학교에 보급한다.

남부교육지원청은 구로·영등포·금천 지역에 중도입국 이주배경학생이 집중된 교육 여건을 고려해, 단순한 한국어 학습을 넘어 교실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중심 한국어 익힘책’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해 교재를 개발했다.

익힘책은 ‘지금 교실에서 바로 써보는 한국어’를 핵심으로, 학교에서 처음 마주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화장실이 급해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등 학교생활 초기에 가장



/서울시교육청

먼저 필요한 표현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언어 장벽으로 교실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입국 초기 학생들이 수업과 일상 의사소통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단원별로 학습 목표를 제시한 뒤 ‘따라 말해보기’, ‘정리하기’, ‘적용·확장 활동’ 순으로 학습이 이어지도록 했으며, 말하기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부록에 기본 어휘 카드를 활용한 문장 만들기 활동과 활용 팁을 함께 담았다.

/이현진 기자

## 교육부, 불필요한 학교 업무 없앤다

법정의무교육 조정 등 업무 정비  
행정 부담 줄이고 자율성 확대

학교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불필요한 행정 업무가 정비된다. 학생 상장 수여와 교원 연수, 예산 집행 등 학교 운영 전반에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변화가 시작된다.

교육부는 학교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불필요한 업무를 걷어내고 행정 부담을 줄이는 개선에 착수

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의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 조서를 작성하던 관행을 바로잡는다. 교육부는 학생 포상에까지 공무원 기준을 적용하면서 불필요한 서류 작업이 발생해 왔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해, 이러한 업무를 하지 않도록 명확히 안내할 계획이다.

교원 연수 운영 방식도 달라진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과도하게 편성돼 온 법정의무교육을 조정하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실질

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목을 확대한다.

재정·회계 분야에서는 학교의 예산 집행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추진된다. 예산 집행과 관련한 회계 규칙과 지침을 정비해 불필요한 납품내역서 증빙을 없애고, 출장비 등 각종 경비 처리 과정에서 과도한 지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회계 집행 운영 방법을 함께 안내한다.

아울러 교직원들의 호봉 확정과 정기 급급 업무,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수영장·통학버스 계약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학교가 직접 처리하던 행정 업무를 줄여 현장의 부담을 최대한 덜겠다는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 화성·광명·안성·양평 ‘통합돌봄도시’ 선정

경기도, 의료·주거 등 인프라 구축

경기도가 화성시·광명시·안성시·양평군 등 4개 시군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하고, 의료·요양·주거를 연계한 5대 핵심 인프라를 상반기 중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앞서, 지역별 인구 구조와 생활 여건을 반영한 ‘경기형 통합돌봄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총 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통합돌봄도시에서 도민들

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5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5대 인프라는 ▲우리동네 방문돌봄 주치의 ▲간호·요양 원스톱 패키지 ▲일상복귀 돌봄집 ▲일상복귀 치료 스테이션 ▲AIP 코디네이터로 구성된다.

우리동네 방문돌봄 주치의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동네 병원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팀이 가정을 방문해 진료와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간호·요양 원스톱 패키지는 방문간호와 방문요양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한 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유통업계, ‘새벽배송 규제’ 파장 ‘성장기회-경쟁심화’ 명암 교차

새벽배송 규제 개편 본격화  
대형마트, 시장 진입 초기기  
이커머스, 자체 경쟁력 강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새벽배송 규제가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거대 플랫폼 기업인 쿠팡을 겨냥한 규제가 자칫 성장 궤도에 오른 컬리와 오아시스마켓 등 ‘새벽배송 전문몰’까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까지 예고되면서 이커머스기업들은 규제와 경쟁 심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최근 택배 노동자의 야간 배송 작업 시간을 주 5일 기준 최대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외부 연구용역을 토대로 주 40시간 제한이 검토됐으나, 배송사들의 반발로 46시간으로 조정된 상태다. 당정은 과로사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이상 노동’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야간 근무는 주간 근무 대비 30%의 가산 시간이 적용되는데 주 46시간을 야간 근무로 환산하면 주간 기준 약 59.8시간이 되어 과로사 인정 기준 임계치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쿠팡과 컬리 등 새벽배송을 해

심 사업으로 영위하는 플랫폼 업체들은 “물류 운영 특성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주 최대 50시간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오는 27일 추가 회의를 열고 이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나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난항이 예고된다.

오프라인 대형마트들의 새벽배송 시장 진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의 새벽 시간 운영 및 온라인 배송을 금지했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마트, 롯데마트 등은 전국 곳곳에 위치한 점포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해 즉각적인 새벽배송 공세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장 환경 급변은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컬리와 오아시스마켓에게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 시간 단축은 배송 기사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컬리 관계자는 “작업 시간이 줄어드는 부분이 당장 회사에 미칠 영향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고 다른 택배사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컬리와 오아시스마켓은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향으로 준비에 나서고 있다. 오아시스마켓은 오프라인 전 매

장에 자체 개발한 AI 무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며 선제적인 운영 효율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컬리는 서울 주요 상권에 오프라인 매장 출점 준비에 나섰다.

다만 컬리 측은 최근의 오프라인 행보를 새벽배송 규제에 대비한 생존 전략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컬리 관계자는 “최근의 오프라인 진출 시도는 새벽배송 규제 움직임에 따른 리스크 분산 차원이 아니다”라며 “과거 편의점 협업이나 쿼커머스사업을 했던 것처럼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해 온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똑같이 새벽배송을 운영하는 SSG닷컴은 손해자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야간 노동 규제의 영향권에 있지만 모회사인 이마트가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 새벽배송 시장 장악력을 높일 경우, 그룹 전체 관점에서 SSG닷컴의 물류 부담을 상쇄하거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쿠팡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규제가 오히려 다른 플랫폼 기업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새벽배송 시장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한국맥도날드, 주요제품 가격 인상

한국맥도날드가 20일부터 주요 제품 가격을 100~4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전체 79개 메뉴 중 35개(44%)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2.4%다.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 한 맥도날드 매장 모습.

/뉴스시스

## 홈플러스, 도시락 2종 ‘990원’ 초특가 행사

80% 이상 할인… 1인당 2개 제한

홈플러스가 설 연휴 직후 고객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일까지 ‘홈플러스’ 도시락 2종을 990원에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고물가와 명절 지출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를 위해 기획됐다. 행사 품목은 ‘홈플러스 고추장&간장불고기 도시락’과 ‘홈플러스 햄&소시지 도시락’이다. 기존 판매가 4990원에서 80% 이상 할인된 990원에 전국 대형마트(온라인 제외)에서 만나볼 수 있다.

홈플러스는 이번 행사를 위해 약 4만 팩의 물량을 확보했으며, 보다 많은 고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인당 구매

수량을 2개로 제한해 판매한다.

990원 도시락은 컵라면이나 삼각김밥보다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 서울 지역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인 3723원보다 약 73% 저렴하며, 6000~7000원대 인편의점 도시락과 비교하면 최대 86% 싸다. 구성 또한 국산 쌀밥에 불고기, 만두, 소시지 야채 볶음, 계란말이, 볶음김치 등 인기 반찬을 알차게 담았다.

홈플러스는 2022년부터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통해 가성비 메뉴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4년째 6990원에 판매 중인 ‘당당 후라이드 치킨’을 비롯해 990원 삼각김밥, 3990원 파스타 등이 대표적이다.

/손종욱 기자

## 신세계백, 봄 맞이 ‘5메이징 카드 페스타’ 돌입

삼성·신한 등 5개 제휴카드사 협력  
다양한 장르에서 실질적 쇼핑 혜택

신세계백화점이 오는 3월 2일까지 5개 제휴카드사와 손잡고 전 카테고리에서 걸쳐 풍성한 쇼핑 혜택을 제공하는 ‘5메이징 카드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씨티, 삼성, 신한, 하나, BC바로 등 5개 카드사와 함께하는 신세계백화점의 대표 사은 행사다. 봄 시즌을 맞아 패션, 잡화, 리빙, 식품 등 다양한 장르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했다.

먼저 행사 기간 명품·패션·잡화 단일 브랜드에서 제휴카드로 결제 시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7%를 신백리워드로 돌려준다. 강남점 등 주요 점포에서는 구매 구간별로 최대 70만 리워드를, 광주신세계 등에서는 최대 7만 리워드를 증정한다.

추가 혜택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오는 22일까지 제휴카드로 당일 10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는 카드사별로 2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며, 5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지원한다. 앱에서는 위치·주얼리, 패션, 리빙 등 카테고리별로 사용할 수 있는 3만원 할인 쿠폰도 내려받을 수 있다.

특별한 경품 이벤트도 내세운다. 행사 기간 100만원 이상 구매 후 앱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5명을 추첨해 고품

격 남도 여행 패키지인 ‘비아신세계 오메이징 럭키 트래블’ 초대권을 증정한다. 또한 23일부터는 오후 5시 30분 이후 식당가와 푸드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다이닝 워크’를 진행하며, 삼겹살과 유정란 등 인기 신선식품을 특가에 선보이는 선착순 쿠폰도 배포한다.

신세계백화점 이성한 영업전략담당 상무는 “봄을 맞아 풍성한 사은 혜택과 여행 이벤트, 다이닝 워크 등 전 카테고리에 걸친 실속 있는 쇼핑 축제를 준비했다”며 “일상 속 알뜰한 쇼핑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 컬리, 멤버스 회원 대상 무료배송 이벤트

2만원 이상 구매시 무제한 무료배송

컬리는 오는 3월 3일까지 컬리멤버스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제한 무료 배송’ 이벤트를 진행한다.

기존 무료 배송 기준은 주문 금액 4만원 이상이었으나, 이번 행사 기간에는 그 절반인 2만원이지만 담아도 배송비(3000원)가 전액 면제된다. 횟수 제한 또한 없어 기간 내라면 몇 번이든 배송비 걱정 없이 장을 볼 수 있다.

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중복 할인’ 허용이다. 기존 멤버스 ‘코어’ 등급 회원에게 매달 지급되던 무료 배송 쿠폰은 타 할인 쿠폰과 함께 사용할 수 있

는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이벤트는 별도 쿠폰 적용 절차 없이 결제 시 자동으로 무료 배송이 적용되므로, 장바구니 할인 쿠폰 등 다른 혜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소액으로 자주 장을 보는 1~2인 가구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전망이다.

‘컬리멤버스’는 월 1900원의 이용료를 내면 2000원의 적립금을 페이백해주는 실속형 구독 서비스다. 2023년 8월 출시 이후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코어’와 ‘플러스’ 등급으로 개편됐으며, 신라면세점·커피빈·런드리고 등 다양한 제휴처 혜택을 제공하며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손종욱 기자

## 롯데마트, 가방·실내화 등 신학기용품 할인

입학·개학시즌 소비자 부담 완화

롯데마트가 3월 신학기를 맞아 오는 25일까지 식기류, 가방, 실내화 등 주요 신학기 용품을 최대 30% 할인해 선보인다.

먼저 인기 캐릭터 식기류 150여 종을 최대 30% 저렴하게 내세운다. ‘넵버블룩스 올인원 교정 젓가락 세트’와 ‘디즈니 주토피아2 교정용 젓가락’ 등을 할인

가에 준비했다.

가방과 실내화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인다. 자체 브랜드(PB) ‘오늘좋은’ 백팩을 2만9900원부터 선보이며, 나이키 가방 5종도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실내화는 ‘오늘좋은 EVA 실내화’를 6900원에, ‘EVA 학생 슬리퍼’는 4900원에 내놓는다. ‘캐치티니핑’, ‘쿠로미’ 등 인기 캐릭터 실내화도 1만원대 초반

에 만날 수 있다.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가구와 학용품도 할인한다. ‘틴백’ 책상용 의자는 1만 원 할인하며, 메모리폼 쿠션과 방석은 20% 저렴하게 선보인다. 필통, 스케치북 등 주요 학용품 150여 종도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했다.

쇼핑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강좌도 마련했다. 롯데마트 문화센터에서는 ‘불꾸(불편 꾸미기)’와 ‘백꾸(가방 꾸미기)’ 특강을 3월까지 진행해 학생들의 흥미를 돋운다.

/손종욱 기자

## 오리온 ‘오!감자’ 신제품 출시

오리온은 국민 스낵 ‘오!감자’의 신제품 ‘ 짹 짹 오!감자 버터갈릭감자튀김맛 (사진)’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짹 짹 오!감자 버터갈릭감자튀김맛은 감자튀김을 단순히 케첩에 찍어 먹는 데서 벗어나 다양한 소스와 조합해 즐기는 MZ세대의 트렌드에 착안해 기획됐다.

이번 신제품은 갈릭디핑소스뿐만 아



니라 과자 자체에도 버터갈릭 맛을 더해, 달콤한 버터와 은은한 마늘의 중독성 강한 단짠 풍미를 한층 깊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제품보다 과자를 한층 길게 만들어 감자튀김처럼 가볍고 바삭한 식감과 함께 찍어 먹는 재미를 높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美 입맛 사로잡은 두부… 풀무원, 채널 다변화로 1위 굳히기

美 두부 매출, 전년比 12.2% ↑  
고단백 제품군 전체 성장세 견인  
신규거래처 확보… 공급 물량 ↑  
생산라인 증설, 설비 확대 추진

미국 내 식물성 단백질 선호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풀무원이 두부 판매 호조에 힘입어 현지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한다.

풀무원은 자사 미국법인의 지난해 두부 매출이 전년 대비 12.2% 증가한 2242억원(1억5760만 달러)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성장 흐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수치다.

특히 고단백 제품군이 전체 성장세를 견인했다. 대표 제품인 ‘하이 프로테인 두부’는 2021년 매출 156억원에서 2025년 415억원으로 약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1회 섭취량 85g 기준 단백질 14g을 함유해 영양 밀도가 높고, 육류 섭취를



풀무원USA가 미국에서 판매 중인 두부 대표 제품. ‘하이 프로테인 두부’, ‘시즈닝 두부’, ‘토피용 두부’



/풀무원

줄이면서도 단백질 섭취량을 유지하려는 소비자 수요를 정확히 겨냥했다는 평가다. 제품은 충전수 없이 진공 포장돼 개봉 즉시 팬이나 에어프라이어에서 조리할 수 있어 편의성까지 확보했다. 샐러드·샌드위치·볶음 요리 등 현지 식문화에 자연스럽게 활용 가능한 점도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유통망 확대 역시 실적 상승을 뒷받침했다. 회사는 지난해 3분기 말 이후 대형

신규 거래처를 확보해 공급 물량을 늘렸으며, 이 효과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두부 제품은 리테일뿐 아니라 푸드서비스, 글로벌 외식 프랜차이즈, 식자재 B2B 등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과 헬시 레스토랑 등 신규 수요처 발굴도 병행 중이다.

생산 인프라도 확충한다. 동부 아이어 공장은 올해 1분기 생산라인 증설 완료

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부 풀러튼 공장 역시 연순두부 설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회사 측은 생산능력 확대와 함께 혁신 신제품을 지속 출시해 시장 점유율을 더욱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두부는 풀무원 미국법인 매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카테고리다. 회사는 올해까지 미국 두부 시장에서 11년 연속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2016년 현지 1위 브랜드 나소야 인수 이후 본격화됐다. 이후 현지 소비자 취향에 맞춘 제품 개발과 생산설비 확충을 병행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왔다. 실제로 미국법인 두부 매출은 2021년 이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현재 풀무원은 두부 경도를 높은 ‘엑스트라 펄 두부’, 단백질 함량을 일반 제품 대비 1.8배 이상 강화한 고단백 라인, 서양식 소스를 적용한 시즈닝 제품, 바로 먹을 수 있는 큐브형 토피용 두부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해당 제품

들은 월마트, 타겟, 퍼블릭스, 크로거 등 주요 유통채널 약 1만5000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마케팅 측면에서는 두부에 익숙하지 않은 주류 소비자층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미국 여자프로농구 선수와 스포츠 영양사 인플루언서 등과 협업해 ‘Power of 9’ 캠페인을 진행하며 두부 단백질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시에 레시피 콘텐츠를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 지속적으로 공개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조길수 풀무원USA 대표는 “플렉시테리언 인구 증가와 함께 고단백 식물성 식품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공급 확대와 채널 다변화를 통해 기존 시장 성장뿐 아니라 신규 수요 창출까지 동시에 추진해 미국 두부 시장 리더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유한양행, 알레르기 신약 글로벌 임상 2상 본격화

레시게르셉트, 美 NIH 등재  
환자 150명 대상 12주간 투여

유한양행이 항 면역글로불린 E(anti-IgE) 계열 Fc 융합단백질 신약 후보물질 ‘레시게르셉트’의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CSU) 환자 대상 다국가 임상 2상을 본격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유한양행은 레시게르셉트 임상 2상 주요 계획을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임상시험 정보 공개 사이트인 클리니컬트라이얼즈에 등재했다. 임상 2상은 CSU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레시게르셉트 또는 위약을 12주간 투여한 뒤,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도록 설계됐다.

1차 평가변수는 베이스라인 대비 12주 시점의 UAS7(지난 7일간의 두드러기 활성 점수) 변화로 설정됐다. 시험은 대한민국을 포함해 일본, 중국, 불가리아, 폴란드 등 아시아·유럽 지역에서 진

행될 예정이다.

이번 다국가 임상 2상은 2026년 2월 연구 개시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2027년 7월 마지막 시험대상자 종료(Last Subject Out)를 예상하고 있다. 주요(topline) 결과는 2027년 4분기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레시게르셉트는 2025년 10월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2상 IND 승인을 확보한 데 이어, 중국 규제 당국으로부터도 2026년 2월 IND 승인을 확보하면서 다국가 2상 운영의 기반을 넓혔다.

유한양행은 앞서 수행한 임상 1상 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예비적 개념 증명을 확인했으며, 특히 CSU 환자에서 혈중 유리 IgE 억제가 대조약인 오말리주맙 대비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세경 기자 seilee@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이사(왼쪽에서 여섯 번째)와 임직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김영준 혁신사업실장(왼쪽에서 일곱 번째), 7개 스타트업 임직원이 3기 퓨처 리테일 성과공유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GS리테일

## GS리테일, 스타트업과 유통 AX혁신 속도

7개 스타트업과 협업 성과 공개

GS리테일이 유망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유통 사업의 인공지능 전환(AI) 혁신에 속도를 낸다고 19일 밝혔다.

GS리테일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더 지에스 챌린지 퓨처 리테일 3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이사를 비롯해 크랩스, 리콘랩스, 오믈렛 등 최종 선발된 7개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난 4개월간의 협업 성과를 나눴다.

이번 3기 프로그램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실제 사업에 적용하는 기술 실증(PoC) 사례들이 주목받았다. GS25

는 스타트업 ‘오믈렛’과 손잡고 AI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한 발주 최적화 시스템을 검증했으며, GS샵은 ‘크랩스’와 함께 AI 기술을 활용한 숯폼 콘텐츠 ‘숯픽’ 제작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GS리테일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7개 스타트업과의 AX 협업을 확대 적용하고, 상반기 중 4기 모집에 돌입할 계획이다.

GS리테일 이성과 신성장부문장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필두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혁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며 유통 업계의 AX 트렌드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손종국 기자 handbell@

## bhc, 점심시간 치킨버거 판매매장 확대

서초교대점·구의역점서도 판매

다이나믹브랜드그룹의 치킨 브랜드 bhc가 기존 개포자이스퀘어점의 운영 성과에 힘입어 서초교대점과 구의역점에서 점심시간대 한정으로 치킨 버거 메뉴를 판매한다.

이번 치킨 버거 운영 매장 확대는 지난해 10월 개포자이스퀘어점에서 시범적으로 치킨 버거를 선보인 이후 3개월간의 판매 성과를 기반으로 결정됐다. 해당 기간 동안 bhc 치킨 버거 3종은 개포자이스퀘어점 점심시간 매출의 약 24%를 차지하며, 바쁜 일상 속 ‘간편한 치킨’을 원하는 직장인과 거주민들에게



‘코울슬로·클래식·파삭 치킨 버거’ 3종. /bhc

큰 인기를 끌었다.

bhc 치킨 버거를 서초교대점과 구의역점에서도 맛볼 수 있는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문이 가능하다. 두 매장은 상권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거점 지역으로 선정됐다.

/신원선 기자

##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분야 경쟁력 입증

‘유럽 크론병 및 대장염학회’ 참가

셀트리온은 현지시간 2월18일~21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2026 유럽 크론병 및 대장염학회(EC CO)’에 참가해 자가면역질환 분야에서 축적한 임상 경험과 포트폴리오 경쟁력 입증에 나선다.

셀트리온은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단독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심포지엄과 포스터 발표 등 다양한 학술 활동을 전개한다.

학회 첫 날에는 ‘웹시마SC’(미국제품명 ‘젠펜트라’)의 크론병 또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 대상 임상 3상 연구를 사후 분

석한 신규 결과를 최초 공개했다.

IBD 환자에서 다양한 임상적 또는 비임상적인 이유로 치료 공백이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사후 분석 데이터는 치료 중단 이후에 인플릭시맙 SC 투여가 의미 있는 치료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인플릭시맙 SC 제형을 통한 환자 치료 개선: 임상적 고찰과 논의’를 주제로, 실제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료 최적화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셀트리온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인플릭시맙 치료제를 포함한 IBD 포트폴리오 경쟁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CJ웰케아

먹는 PDRN 제품

‘이너비 피디알엔 리즈’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CJ웰케아가 먹는 PDRN 제품 ‘이너비 피디알엔 리즈(InnerB PDRN RISE)’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약국 현장에서의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기획됐으며, 천사약국 이승희 약사와의 공동 개발을 통해 제품 설계 단계부터 약사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너비 피디알엔 리즈’는 PDRN 150mg(연어이리추출물 PDRN)을 비롯해 저분자 피쉬콜라겐 1000mg,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가수분해물 등을 배합한 복합 포뮬러로 구성됐다. 다양한 원료들을 한 포에 담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LG생활건강

브랜드 ‘VDL·유시몰’

동남아서 매출 급성장

LG생활건강 색조 브랜드 ‘VDL’과 오랄뷰티 브랜드 ‘유시몰’이 최근 동남아시아 온라인 채널에서 급성장하며 견고한 매출 기반을 다지고 있다.

19일 LG생활건강에 따르면 프리미엄 브랜드 VDL이 지난해 5월 동남아 1위 이커머스 플랫폼인 ‘쇼피(Shopee)’에 입점한 이후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해 2025년 12월 기준으로 입점 첫 달 대비 ‘네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 결과 태국 쇼피 ‘프라이머 카테고리’에서 매출 1위를 달성했다.

VDL은 국내와 일본에서 히트한 ‘컬러코렉팅 프라이머’를 앞세워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적극 진행했다. 이를 통해 태국 고객을 사이에서 ‘강한 밀착력을 갖췄다’는 긍정적인 리뷰와 입소문이 확산됐다. 또한 쇼피가 구축한 현지 물류망을 적극 활용해 배송 기간을 최장 12일에서 5일 이상 단축했다. /이세경 기자



LOTTERIA™

치킨버거의 근본을 세우다!

파이어하트

단품 6,900원  
세트 8,900원

그릭랜치

단품 6,900원  
세트 8,900원두툼하다  
두툼해!

침착맨'S PICK

갈라야 갈 수 없는 무적의 치킨버거

통다리 크리스파 치킨버거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타이어, 포몰러E ‘2026 제다 E-PRIX’ 4·5R 성료

아이온 레이스, 사막 변수에도 성능 입증  
제다 코니쉬 서킷격전… 접지·제동 관련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는 전기차 레이싱 대회인 ABB FIA 포몰러 E 월드 챔피언십(포몰러 E) 시즌 12의 제 4·5라운드 ‘2026 제다 E-PRIX’가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포몰러 E 오피셜 파트너로 타이어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흥해 연안을 따라 조성된 총 길이 3001km의 ‘제다 코니쉬 서킷’에서 진행됐다.

코스는 고속 직선 구간과 19개의 코너가 연속 배치됐으며 타이어 접지력,



한국타이어가 후원하고 있는 전기차 레이싱 대회 포몰러 E 시즌 12 2026 제다 E-PRIX 경기 장면.

핸들링, 제동 성능, 내구성 등이 경기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했다.

한국타이어는 공식 전기차 레이싱 타이어 ‘아이온 레이스(iON Race)’를

공급했다. 아이온 레이스는 뛰어난 접지력과 핸들링, 제동 성능으로 주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했다. 특히 큰 일교차와 모래바람 등 예측이 어려운 사막

주행 조건에서 일관된 퍼포먼스를 구현해 전동화 레이싱 타이어 기술력을 입증했다.

‘포르쉐 포몰러 E 팀’ 소속 파스칼 베를라인 선수와 ‘재규어 TCS 레이싱’ 소속 안토니오 펠릭스 다 코스타 선수가 각각 4, 5라운드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타이어는 대회 종료 후 총 12명의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차세대 레이싱 머신 ‘GEN3 예보’ 탑승 행사를 진행했으며 포몰러 E 실제 트랙 주행으로 실시됐다.

포몰러 E 시즌 12 제6라운드는 다음 달 21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시르쿠이토 델 하라마’에서 개최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하림, 초등 입학 자녀 둔 임직원에 선물

하림이 초등학교 입학 앞둔 임직원 자녀들에게 축하 선물을 전달하며 가족 친화 경영 행보를 이어갔다. 하림은 지난 12일 익산 본사에서 초등학교 입학 예정 자녀를 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입학 축하 선물 세트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하림



삼표그룹, 신입 온보딩에 사회공헌 접목

삼표그룹이 신규 입사자의 조직 적응을 돕는 ‘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에 사회공헌 활동을 접목하며 기업 나눔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 삼표그룹은 최근 경주시 소재 삼표연수원에서 신규 입사자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체험형 ‘핸즈온(Hands-on)’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삼표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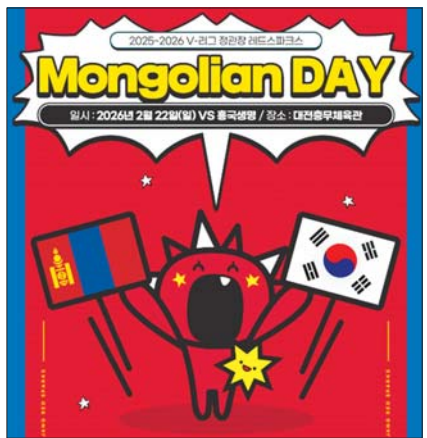
##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몽골리안 데이’

대전 충무체육관서 교민 200명 초청

정관장 배구단 ‘레드스파크스’가 오는 22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몽골리안 데이’를 진행한다. 스포츠를 매개로 문화 교류와 팬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행사다.

이번 행사는 몽골 설날(2월 18~20일)을 맞아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 교민들과 함께 명절의 의미를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경기에는 몽골 교민 200여 명과 주한 몽골 대사관 관계자들이 초청될 예정이다. 수혜 수흐벌드(H.E. Sukhee S UKHBOLD) 대사로도 참석할 계획이다. 최근 정관장에 합류한 몽골 출신 스타 선수 인쿠시도 현장에서 팬들과 만난다.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인쿠시는 정관장 입단 발표 이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몽골리안데이 포스터. /KGC인삼공사

후 몽골과 한국을 오가며 프로 데뷔를 준비해왔다. 등번호 1번을 달고 코트에서는 그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부담도 있지만, 늘 도전 속에서 성장해왔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생명존중’ 잇는 JW성천상 후보 찾는다

JW이종호재단  
음지에서 헌신한 의료인 발굴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은 ‘2026 JW성천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JW성천상은 고(故) 이종호 명예회장이 JW중외제약의 창업자인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과 철학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12년 제정한 상이다. 이 상은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음지에서 묵묵히 헌신·공헌하며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료인을 매년 발굴하고 있다.

올해 JW성천상 후보자 모집은 오는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추천 방법은 JW이종호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추천서를 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해 이메일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공고문 내에 있는 온라인 신청하기 링크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관 추천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와 동료 의료진도 신청 가능하도록 추천 경로를 확대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에이피알, 2025년 사회공헌 57억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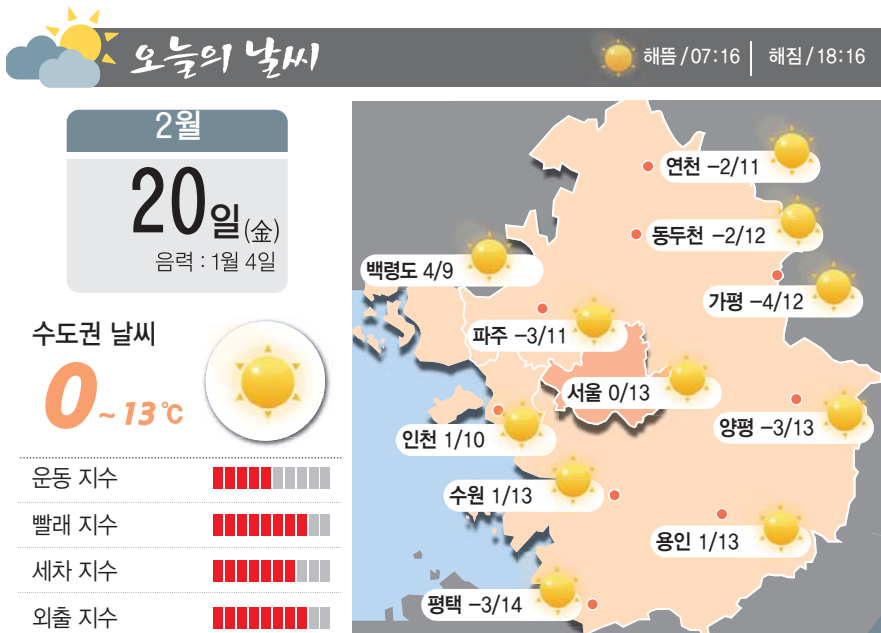
최근 3년 누적 100억 넘어

에이피알은 2025년 한 해 동안 집행한 사회공헌 금액이 총 5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긴급 구호 성금과 자사 물품 기부 등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2024년 대비 약 30% 증가한 수치다.

2014년 설립된 에이피알은 사업 초기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자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기업 성장의 결실을 지역사회와 나눈다는 목표 아래, 외형 성장에 발맞춰 사회공헌 활동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그 결과 에이피알은 지난 2023년에 대한적십자사 내 1억원 이상 기부한 법인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에 가입했으며, 최근 3년 동안 집행한 누적 사회공헌 금액은 총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세경 기자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BNK경남은행, 어르신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차단

BNK경남은행은 울산남구시니어클럽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금융교육’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금융교육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로부터 지역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자금관리를 전달해 어르신들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BNK경남은행 수암지점 및 삼산동지점 직원들은 울산남구시니어클럽에 방문해 60세 이상 지역 어르신 40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보이스피싱 사례를 공유하고,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모바일 보안 어플 설치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한 금융교육에 참가한 어르신들을 위해 ‘시티즌코난’ 어플을 직접 휴대폰에 설치하고 악성 앱 탐지와 보안 점검을 진행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김덕원 BNK경남은행 울산도시공사영업소 소장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BNK경남은행

김덕원 BNK경남은행 울산도시공사영업소 소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하면서 사기 피해를 입은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라며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 수상한 문자나 전화가 오면 각별히 주의하시고, 앞으로도 어르신과 고객들이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금융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KT&G

## 상상실현 페스티벌 춘천 티켓 오픈즉시 전량 매진

KT&G의 ‘2026 KT&G 상상실현 페스티벌 춘천’ 티켓이 지난 12일 오픈과 동시에 전량 매진됐다. 해당 행사는 오는 4월 11일, 12일 양일간 상상마당 춘천서 개최된다.

‘상상실현 페스티벌’은 KT&G가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12년 첫 선을 보인 복합문화예술 축제다. 해당 행사는 지역 주민을 위한 페스티벌 티켓 할인과 플라마켓 등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하며, 매년 매진 행렬을 기록했다.

/신원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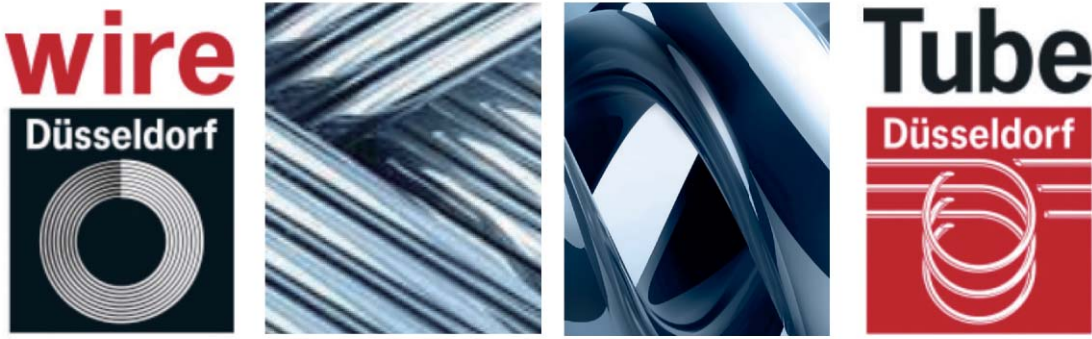
##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디지털산업제도과장 남영준 △소프트웨어정책과장 김국현 △주파수정책과장 강창욱

## 부음

▲김명자 씨 별세, 박근철(전 경기도의원)씨 모친상 = 19일, 강원도속초의료원 장례식장, 발인 21일 오전 0시. (033)630-6016





COME&CONNECT

2026년 4월 13일 - 17일  
독일 뒤셀도르프

시찰단 모집

- 만데스만의 그린스틸을 비롯한 AI·로봇 연계한 생산관리 회사 탐방
- AI 응용 자동 용접·Pipe 제조사·용접 메쉬 철근가공, 전기강판, 클래드 파이프
- 탄소국경제도(CBAM)·유럽 관세정책을 꿰뚫어 보는 최신 이슈 경청(국제 포럼/세미나)
- 철강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네트워킹의 장!

참가일정

1. 참가신청 및 접수기간  
2026년 2월 2일(월) ~ 3월 6일(금)

2. 참가비용  
5,990,000원

- 항공료, 숙박료, 교통비 등 일체 비용 포함
- 항공은 이코노미 클래스 (비즈니스 변경시 에스앤마일즈 문의)
- 숙박은 4성급 호텔 2인1실 기준 (호텔 싱글 차지 610,000원)

3. 신청방법

- 2026년 3월 6일(금)까지 당사 E-mail :smkang@snmiles.com으로 여권 사본 및 핸드폰 번호 송부 요망
- 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입국 가능

주요일정

날짜	도시	교통편	시간	일정	식사
DAY 1 4월 12일 일요일	인천 프랑크푸르트 뒤셀도르프	KE 945 전용차량	8:00 10:50	인천국제공항 집결 및 개별 탑승수속 인천 국제공항 ICN 출발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FRA 도착 한국인 가이드와 미팅하여 뒤셀도르프로 이동 (약 2시간 45분 소요) 석식 후 호텔 체크인 후 휴식 HOTEL : Ramada By Wyndham Essen 혹은 동급	중 : 기내식 석 : 현지식
DAY 2 4월 13일 월요일	뒤셀도르프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전시장으로 이동 Wire&Tube 2026 전시회 참관 (DEUTSCHE MESSE-전시회 설명) 석식 후 호텔 복귀 및 휴식	조 : 호텔식 중 : 매 식 석 : 현지식
DAY 3 4월 14일 화요일	뒤셀도르프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전시장으로 이동 Wire&Tube 2026 전시회 참관 석식 후 호텔 복귀 및 휴식	*티센그룹 머티리얼 *SMS그룹, Swiss Steel그룹 1. 만네스만 그린스틸 2. ECO-Metal 프로그램을 통한 친환경 제조혁신기업 3. EVG, Butting 그룹 조 : 호텔식 중 : 매 식 석 : 현지식
DAY 4 4월 15일 수요일	뒤셀도르프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업체견학 현지업체 견학 : FRAUNHOFER 연구소(섭외중), CD.W EJP, Bilstein trade KG(섭외중), 막스플랑크연구소(섭외중) 등 프랑크푸르트로 이동 (약 2시간 45분 소요) 석식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조 : 호텔식 중 : 현지식 석 : 현지식
DAY 5 4월 16일 목요일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9:00	호텔 조식 후 업체견학 현지업체 견학 : FRAUNHOFER 연구소(섭외중), CD.W EJP, Bilstein trade KG(섭외중), 막스플랑크연구소(섭외중) 등 프랑크푸르트로 이동 (약 2시간 45분 소요) 석식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HOTEL : Holiday Inn Frankfurt Airport-Neu-Isenburg 혹은 동급	조 : 호텔식 중 : 현지식 석 : 한 식
DAY 6 4월 17일 금요일	프랑크푸르트	KE 946		호텔 조식 후 프랑크푸르트 문화 탐방 - 프랑크푸르트 구시가의 중심 광장 광머광장 - 황제의 대관식이 치뤄졌던 고딕 양식의 성당 카이저 돔 - 3개의 동으로 구성된, 현대 예술작품을 볼 수 있는 현대 미술관 - 독일 국민 의회의 회의 장소로 사용된 파울교회 -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변화한 자일거리 - 뢰머광장과 박물관 지구에 있는 철조 소제의 아이젤너 다리 - 신성로마제국 황제들이 대관식을 거행했던 대성당 공항 이동,개별 탑승 수속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출발 (기내 숙박)	조 : 호텔식 중 : 현지식 석 : 자유식
DAY 7 4월 18일 토요일	인천		17:10	인천 국제공항 ICN 도착	조 : 기내식 중 : 기내식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 및 현지업체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포모가 빚어낸 디저트 광풍

(FOMO·소외불안 증후군)



연 윤 열 의  
푸드톡톡

지금 대한민국 디저트 시장은 7500km 가량 떨어진 중동의 향기에 취해 있다. ‘두바이 쏘네키키(두쫘꾸)’를 구입하기 위해 영하의 날씨에도 오픈런이 이어지고, 진열대는 입고와 동시에 비워지기 일쑤다. 마치 금값의 폭등과 경쟁이라도 하듯이 웬만한 식사 한 끼 값을 훌쩍 뛰어넘는 사악(?)한 가격표를 달고 있다.

주재료인 피스타치오는 미국산 작황 부진과 기후 변화로 인해 1년 사이 국제 시세가 무려 두 배 이상 올랐다. ‘그린 골드’라 불리는 피스타치오와 수입에 의존하는 카다이프의 수급 불안이 급기야 ‘디저트플레이션’을 유발했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었다.

카다이프는 튀르키예와 아랍 지역의 전통적으로 굽기가 가느다란 소면으로, 오스만 제국 시대부터 즐겨 먹었다. 흰색인 면을 버터에 노릇하게 볶으면 식감이 바삭해진다.

흥미로운 점은, 정작 아랍에미레이트 두

바이 현지에는 ‘두쫘꾸’가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두쫘꾸’ 광풍으로 인해 중동에 수출하는 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두바이 초콜릿의 열풍은 두바이에 거주하던 영국계 이집트인 여성 사라 함무다의 아주 개인적인 욕구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그녀는 기존의 평범한 초콜릿보다 특별한 디저트를 갈망했고, 중동의 전통 식재료를 창의적으로 조합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캔트 겟 크나페 오브 잇(Can’t Get Knafeh Of It)’이다. 이 초콜릿은 아랍의 전통 디저트 ‘크나페’에서 영감을 받아, 바삭한 카다이프와 고소한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초콜릿 안에 가득 채운 필링 초콜릿이다.

초기에는 일주일에 단 몇 개만 팔릴 정도로 미미했지만, 2023년 12월 유명 틱톡커의 ASMR 시식 영상이 1억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인 ‘두바이 초콜릿 신드롬’을 일으켰다. 필자가 늘 강조해온 ‘자발적 불편함’ 관점에서 볼 때 단순당과 포화지방으로 농축된 이 초가공식품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염증 사령관인 ‘NF-κB’를 활성화한다. NF-κB는 세포 안에서 억제 단백질과 결합해 있다가 스트레스나 감염 등 외부 자극을 받으면 억제 단

백질이 분해되어 염증 및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핵심 물질이다.

심리학적으로 유행에 뒤처지거나 남들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적 현상을 소외불안 증후군(FOMO: Fear Of Missing Out)라고 한다. 집단주의와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를 잃어버리고, 미래를 위해 현재의 행복을 무조건 희생하거나 과도한 멀티태스킹적 강박감에 시달리게 된다.

미래를 위한 막연한 인쇄보다, 오늘의 즐거움과 내가 진정 추구하는 삶의 목표를 찾아야 한다. 모든 것을 다 잘하려는 멀티태스킹의 강박감에서 벗어나 한 가지 일과 생각에 몰입해야 정신건강에 도움을 준다. ‘선택과 집중’을 실천하는 것이다.

유행과 흐름에 조금 뒤처지더라도 나만의 행복을 찾는 JOMO(Joy Of Missing Out)의 태도를 지향해야 한다. 타인의 삶과 나를 지나치게 비교하지 말고 현재의 삶에 집중함으로써 스스로의 목표와 가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불황 속에 ‘작은 사치’라는 명분은 탈취할 수 있으나 내 몸의 망가진 대사 균형과 장내 환경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식품기술사·푸드테크 칼럼니스트

## 판교, 더 이상 같은 질문은 받지 않는다



기지 수첩  
최 빛 나  
(IT부)

판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한때 이곳은 국내 IT 산업의 성장 신화가 응축된 공간이었다. 높은 연봉과 과격적 보상, 공격적 채용과 대규모 투자. 이른바 ‘판교 모델’은 확장과 낙관의 상징이었다. 판교에 둥지를 틀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은 미래 가치를 인정받았고, 개발자는 커리어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변화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다. 판교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판교의 변화는 프로젝트 운영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과거에는 긴 호흡을 전제로 수십 명의 개발자가 하나의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회사 역시 그 과정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여겼다. 완성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방향성이 맞다고 판단하면 밀어붙였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다르다.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시장 반응을 보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빠르게 정리한다. 효율과 속도를 앞세운 전략이다.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될 수 있지만, IT 업계 종사자들에게는 불안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 언제든 프로젝트가 접힐 수 있다는 인식은 곧 고용과 커리어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시기 드라마틱한 성장을 경험했던 기업사들에는 이런 변화가 더욱 예민하게 감지된다. 단기간에 몸집을 키웠던 조직일수록 성장 둔화 이후의 긴장감은 더 크게 체감될 수밖에 없다. 공격적 채용과 대규모 프로젝트 확장이 일상이었던 시절과 지금의 온도 차는 분명하다.

투자 시장의 태도 역시 냉정해졌다. 성장 서사만으로는 자금을 끌어오기 어렵다.

현금 흐름과 수익 구조, 지속 가능성이 먼저 거론된다. 판교라는 지리적 상징이 투자 판단의 우선 조건이 되던 시기는 멀어지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인식이다. 판교를 향한 시선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기업들이 얼마나 명확히 받아들이고 있는나. 속도전만으로는 산업의 신뢰를 지키기 어렵다. 개발자의 안정감과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은 단기 효율과는 다른 문제다.

판교 기업들은 여전히 국내 IT 산업의 중심에 서 있다. 달라진 환경에 맞춰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하되, 인재와 산업 기반을 함께 키우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성장의 판교가 생존의 판교로 이동하는 이 시기, 기업의 선택은 곧 산업의 방향이 된다.

‘판교의 신화’는 끝난 것이 아니라 시험대에 오른 것인지도 모른다.

/vitn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2월 20일 (음 1월 4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운이 좋지만 자만해선 안됩니다. 60년생 아랫사람을 잘 다스려야 일이 잘 풀리니 마련입니다. 72년생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84년생 기운이 앞서니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49년생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61년생 서두르지 않아도 차근차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73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지만 너무 기대하진 마세요. 85년생 친구들과 만나면 즐겁습니다.



50년생 귀인이 찾아왔는데 알아보질 못합니다. 62년생 부모와 가족을 좀 더 챙기세요. 74년생 몸관리가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합니다. 86년생 이성이나 친구의 제안을 조심하게 필요합니다.



51년생 지금은 더욱 열심히 할 때입니다. 63년생 요령 피우면 나만 손해볼 수 있습니다. 75년생 일을 추진할 때 주위의 조언을 구하세요. 87년생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고 만나보세요.



52년생 운이 길하니 기대해도 좋습니다. 64년생 주위의 기대를 받게 됩니다. 76년생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88년생 신중히 행동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53년생 스트레스가 많으니 휴식이 필요합니다. 65년생 일을 해도 다른 일이 계속 생깁니다. 77년생 저녁 약속은 뒤로 미루는게 좋습니다. 89년생 주위를 챙길수록 더 큰 즐거움이 생깁니다.



54년생 긴장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66년생 따지는 것보다는 참는게 좋습니다. 78년생 작은 일이라도 그냥 넘기면 안됩니다. 90년생 신중하게 나중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55년생 불기운처럼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67년생 명예와 재물이 좋은 하루입니다. 79년생 외출이나 여행하기에 좋은 하루입니다. 91년생 계획하고 노력하던 일에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56년생 원만한 복이 있으니 기분이 좋습니다. 68년생 다투면 손해보니 피하는게 좋습니다. 80년생 운이 좋지는 않지만 큰 손해는 없습니다. 92년생 윗분에게 칭찬이나 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7년생 편안하고 자신감이 충만하는 하루입니다. 69년생 능력이 발휘되니 능률도 좋습니다. 81년생 실행보다는 현명한 판단이 더 필요합니다. 93년생 생각도 못했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58년생 계획하던 일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70년생 겸손하게 대응하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82년생 다른 일보다 본업에 충실하세요. 94년생 음식물에 주의하는게 좋습니다.



59년생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자제하는게 좋습니다. 71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83년생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95년생 계획하고 추진하던 일의 결과가 좋습니다.



## 김상회의四季

재물복 자산

잘 알고 지내는 중소기업인 A씨가 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도 직원 임금 한 번 밀리지 않을 정도면 아주 양호하게 기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고 봐야 한다. 평소 투자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종종 상담을 왔었지만 A씨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는 데에는 금투자가 유효했다. 금값이야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요동을 치긴 했지만, 회사의 이익잉여금으로 일부라도 금 투자를 하도록 이미 10년 전쯤 필자에게 처음 상담을 왔을 때 조언을 했었다. 이는 회사의 경영자인 A씨의 사주 명조를 보자니 금으로 생기를 받는 구조였기에 그리 얘기했다. 요즘 A씨는 거의 폭등하다시피 한 금값 때문에 사업 이윤보다 투자이익 때문에 회사 재무제표의 당기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기뻐한다.

역시 수입업을 하고 있는 K씨는 국내의 우수 기업에 다니다가 그 좋은 직장을 왜 관두냐는 소리를 뒤로하고 소규모로 무역을 시작했다. 지금은 우리나라 네일샵이 보편화 되었지만 20년 전만 해도 드문드문 네일샵이 있었다. 그는 미국 출장을 갔을 때 길거리 여기저기에 네일샵이 흔한 것을 보았다. 당시 필자에게 상담을 온 그에게서 화려한 색채가 느껴졌다. 미대를 나왔다고 물으니 그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중 계획을 얘기하는데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였고 그의 운기도 전환기에 있었다. K씨는 반년 뒤에 퇴직하고 온갖 매니큐어 관련 제품을 수입하는 일에 몰두했다. 한 1년 반은 쉽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수입물량이 모자랄 지경이었고 지금은 아프리카며 중앙아시아 국가에까지 수출하는 상황이다. 편재운이 강하면 재복이 좋다. 하지만 사람마다 맞는 재물복의 분야가 있다. 부동산으로 재물복이, 주식이나 채권처럼 금융 분야로 펼쳐지는 사람 등 다른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5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60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스도쿠 3650

결판스도쿠110

초하스도쿠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라이노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7	9	6	8	9	2	1	8
6	9	8	2	1	8	7	2	9
2	8	1	7	9	2	9	8	6
7	8	1	9	8	6	8	2	1
8	2	8	9	2	1	6	9	7
1	9	6	8	2	7	8	9	2
9	1	7	2	6	8	9	8	1
9	8	2	8	7	2	1	6	9
8	6	2	1	9	9	2	7	8

6	8	8	7	9	2	2	9	1
9	9	2	2	6	1	7	8	8
2	1	7	9	8	8	6	2	9
9	7	1	6	2	8	8	9	9
2	2	8	1	9	8	2	8	6
8	9	6	8	2	9	1	2	7
7	2	9	8	1	2	9	6	8
8	8	2	9	7	6	9	1	2
1	6	9	2	8	9	8	7	2



# 한국인 입맛에 ‘착붙’... 스페인 와인의 매력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13

국내 와인 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지만 작년에도 잘 팔린 와인이 있다. 뉴질랜드 와인의 경우 최근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으니 다들 알고 있지만 소리소문도 없이 깜짝 성장한 와인은 바로 스페인이다. 화이트 와인 대세 분위기 속에서 스페인의 무게감 있는 레드와인도 잘 팔렸단 얘기가.

한국주류수입협회에 따르면 작년 와인 수입 주요 국가 가운데 금액과 규모 모두 늘어난 곳은 스페인과 뉴질랜드 두 곳 뿐이다. 스페인 와인은 지난해 1000만 리터 가까이 수입됐다. 물량 기준으로는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한 스페인 와인 수입사 관계자는 “스페인 와인은 유럽 주요국과 달리 품질 대비 가격이 부담되지 않는다”며 “가성비 뿐만 아니라 템프라니요, 모나스트렐(무르베드르) 등 스페인 토착품종이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는 데다 국제 품종까지 종류도 다양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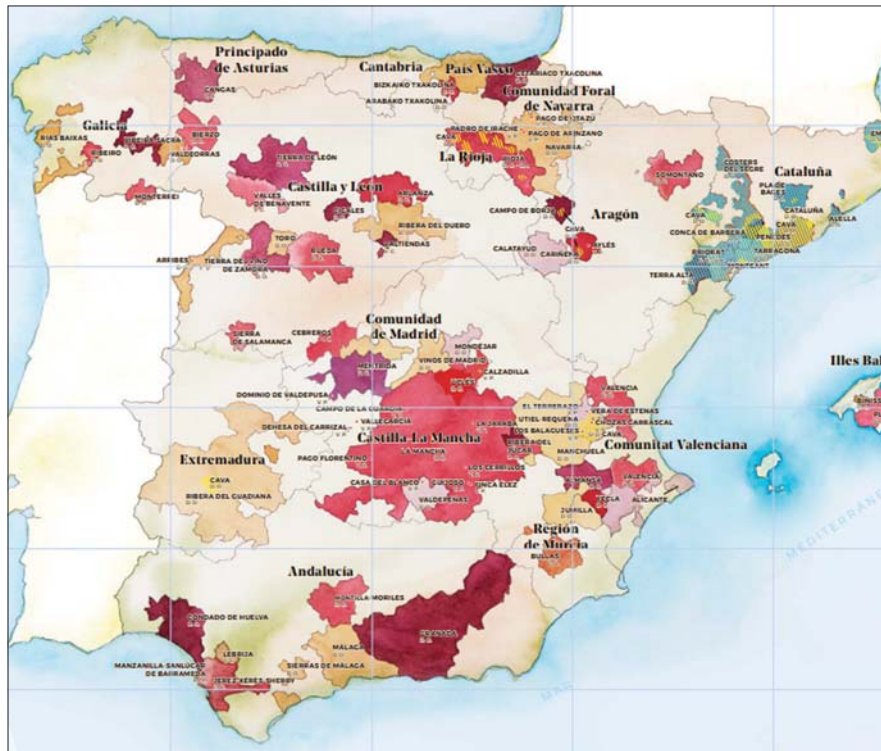


(왼쪽부터)도미니오 데 라 베가 누메로 우노 2023, 티오 페페 피노, 테라스 가우다 오 로잘 2024, 아르수아가 크리안자 2022, 핀카 바카라 HI 2018. /안상미 기자

이 넓다”고 전했다.

스페인 와인의 가장 큰 매력은 다양성이다. 스페인 지도를 보면 왜인지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이인순 와인랩의 이인순 원장은 “최고의 스페인 와인들(Top Spanish Wines)’을 주제로 한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스페인은 국가가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대륙으로 다양한 기후, 테루아가 존재한다”며 “스페인 와인이라고 하면 보통 품종으로는 템프라니요나 가르나차(그르나슈), 지역으로는 리오하, 리베라 델 두에로 등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다양한 와인을 만나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페인 와인 인터프로페셔널 기구



스페인 와인 산지를 나타낸 지도.

/스페인 무역진흥공사 ICEX

(OIVE)는 지난해 말 한국에서 스페인 와인의 품질과 다양성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스페인은 로마 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포도 재배와 양조가 오랜 기간 발전해 왔으며, 현대 트렌드를 반영한 와인도 생산된다”며 “전역이 건조한 기후로 유기농과 지속가

능 농법도 발달했다”고 설명했다.

시작은 스페인의 스파클링 와인으로 샴페인과 같은 방식으로 만든 카바다. 전체 스파클링 와인 가운데 스페인의 비중이 20%를 웃돌 정도로 카바는 국내에서도 인기가 좋다.

‘도미니오 데 라 베가 누메로 우노 2023’은 발렌시아 지방에서 마카베오 품

종 100%로 생산한 카바다. 잘 익은 과실 향이 시원스럽게 피어오르더니 꽃향이 어우러진다. 산도와 당도의 균형감이 좋은 가운데 살짝 씹살한 끝맛이 깔끔하다.

화이트와인은 알바리뇨를 주품종으로 한 ‘테라스 가우다 오 로잘 2024’다. 알바리뇨가 잘 자라는 리아스 바이사스 지역에서 생산됐다. 좋은 산도에 화사한 오렌지향과 허브까지 표현력이 좋고, 살짝 짭조름하다 싶은 염분과 청량감이 어우러져 해풍의 영향이 입안에서도 느껴진다.

이제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본다.

먼저 레드와인 명산지로 떠오른 리베라 델 두에로다. 내륙 분지에 해발 700~1000미터의 고지대로 여기서 자란 템프라니요는 농축된 과실에 탄탄한 구조감으로 힘이 느껴지지만 산도도 잘 살아있다. 템프라니요를 주품종으로 한 ‘아르수아가 크리안자 2022’는 잘 익은 과실 풍미와 우아한 오크 숙성이 어우러지고, 복합미가 두드러진다.

다음은 모나스트렐로 유명한 후미야다.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생산지 중 하나다. ‘핀카 바카라 HI 2018’은 모나스트렐 100%로 만들었다. 검은 과실과 향신료, 지중해 허브, 발사믹 아로마까지 풍부하게 느껴진다.

/smahn1@metroseoul.co.kr

## 문화 단신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의 최가온과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뉴시스

## 설상 새 역사 쓴 韓,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불모지였던 ‘스노보드’ 첫 금  
‘쇼트트랙’, 전통적 효자 종목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 중인 대한민국 선수단은 빙상과 설상을 가리지 않는 전방위 활약을 펼치며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19일 기준 대한민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종합 15위를 기록 중이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성과는 설상 종목의 비약적인 발전이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의 최가온은 압도적인 기량으로 대한민국 설상 종목 사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는 1948년 생모리츠 대회 첫 참가 이후 78년 만에 일궈낸 쾌거다. 여기에 김상겸의 은메달과 유승

은의 동메달이 더해지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눈 위에서 약자가 아님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

전통적 효자 종목인 쇼트트랙 또한 건재함을 과시했다. 여자 대표팀은 3000m 계주에서 8년 만에 정상에 올랐으며, 최민정은 개인 통산 6번째 올림픽 메달을 확보해 한국 역대 최다 메달 타이거를 세웠다. 동시에 김길리, 임종연 등 신예들의 활약은 성공적인 세대교체를 알렸다.

비록 메달권에는 들지 못했으나 피겨스케이팅 차준환의 역대 최고 성적 등 전종목에 걸친 고른 성장은 고무적이다. 특정 종목 편중에서 벗어나 ‘동계 스포츠 올라운더’로 거듭난 대한민국은 남은 일정에서도 추가 메달 사냥을 통해 역대 최고 성과를 정조준하고 있다.

/최규춘 기자 ch9720@

## 개관 20주년 맞은 샤롯데씨어터, 2026공연 라인업 공개

화려한 무대 ‘킹키부츠’ 3월 29일까지  
한국적 미학의 ‘몽유도원’ 4월 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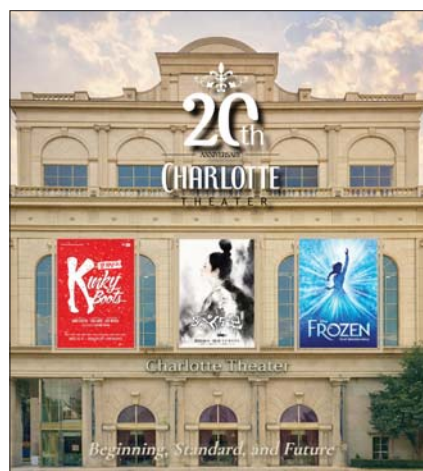
국내 최초 뮤지컬 전용 극장 샤롯데씨어터가 대중성과 완성도를 갖추고 세계 무대와 호흡하는 2026 공연 라인업을 공개했다.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이한 샤롯데씨어터는 대표 뮤지컬 극장으로서 한국 뮤지컬 산업의 성장과 함께해 왔다. 대형 라이선스 뮤지컬부터 국내 창작뮤지컬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의 작품을 선보이며 두터운 신뢰를 쌓아온 샤롯데씨어터는 2026년에도 동서양을 아우르는 완성도 높은 라인업으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쇼 뮤지컬의 대명사 ‘킹키부츠’

지난해 12월부터 객석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스테디셀러 뮤지컬 ‘킹키부츠’가 오는 3월 29일까지 그랜드 피날레를 장식한다. 경쾌한 넘버와 강렬한 퍼포먼스, 화려한 무대 연출이 어우러진 ‘킹키부츠’는 유쾌한 에너지와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로 연일 매진 행렬을 기록 중이다. 샤롯데씨어터의 최적화된 음향 시스템과 시야를 통해 ‘쇼 뮤지컬’의 진수를 선사하며 2026년의 화려한 포문을 열어 관객들과 함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K-뮤지컬 ‘몽유도원’의 귀환



2026 샤롯데씨어터 라인업.

/롯데컬처웍스

4월부터는 한국적 서사와 미학의 결정체, 창작 뮤지컬 ‘몽유도원’이 무대에 오른다. 최인호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백제 ‘도미전’ 설화를 재해석한 이 작품은 서정적인 무대와 섬세한 음악으로 관객을 매료시킨다. 특히 수목화를 연상시키는 환상적인 무대 연출과 오케스트라와 국악이 조화를 이룬 선율은 K-뮤지컬의 정수를 보여주며, 샤롯데씨어터의 격조 높은 공간과 시너지를 극대화할 전망이다.

◆디즈니 대작 ‘프로즌’ 국내 초연

8월부터는 2026년 전 세계 뮤지컬 팬들이 가장 기다려온 기대작 뮤지컬 ‘프로즌(FROZEN)’이 국내 초연의 맛을 올린다.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킨 영화 ‘겨울왕국’을 무대화한 이 작품은 디즈

니 시어트리컬 프로덕션의 브로드웨이 대표작인 ‘라이온 킹’ ‘알라딘’에 이어 한국 관객이 만날 대작이다. 거대한 눈과 얼음의 세계를 구현한 무대와 ‘Let It Go’ 등 영화 속 명곡은 물론, 신곡까지 라이브로 선보인다. 샤롯데씨어터에서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무대로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마법 같은 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참여형 이벤트·한정판 MD 출시

샤롯데씨어터는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극장의 주인공인 관객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극장 내 관객들의 소중한 기록을 담은 방명록과 포토존을 운영하며,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관객들의 사연과 사진을 활용해 ‘관객이 만드는 샤롯데씨어터 포스터’를 제작·공개한다. 또한, 뮤지컬 마니아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할 세련된 디자인의 20주년 한정판 MD 상품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샤롯데씨어터는 “개관 20주년을 맞아 관객들에게 더욱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라인업을 구성했다”라며 “앞으로도 샤롯데씨어터만의 정체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며 대표 뮤지컬 극장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내 잃은 트럼프, 수주내 이란 공격 90%”

/사진 뉴시스

▲트럼프 평화위 전날 유엔 안보리서 이스라엘 규탄…‘가자 전쟁’ 본격화

▲‘코로나19 봉쇄 회의론자’ 美 국립보건원장, C DC 국장직 겸임

▲푸틴 측근 “美, 대러 제재로 435조원 손실…제재 해제할 것”

▲중준제 갈라쇼 달군 휴머노이드 로봇…소비자 관심 폭증

▲후주 1월 실업률 4.1% 유지…“5월 추가 금리인상 기대 상승”





유통업계  
새벽배송 규제  
파장  
L1

metro®

Life

폴무원  
채널 다변화로  
1위 굳힌다  
L2



# 하이브리드·심리스 전략... 실적성장 넘어 '지속성장'으로

2026  
생산·포용·신력의 금융

iM금융그룹

iM금융의 올해 경영 목표는 '지속성장'이다. 지난해 iM금융그룹의 영업이익이 전(全) 계열사의 체질개선에 힘입어 큰 폭으로 성장한 가운데 매출 확대에 기반한 영업이익의 성장이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iM금융은 지난 2024년 시종은 행으로 전환한 iM뱅크의 전국단위 '니치마켓(틈새시장)' 전략을 지속하는 한편, 대대적인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한 비은행 계열사의 매출 확대에도 힘쓴다.

## ◆ '니치마켓' 공략... '하이브리드 금융'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은 신년사에서 "확실한 타깃을 겨냥한 대표 상품으로 iM금융만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고,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에 'iM만의 임팩트'를 줘야 한다"면서 "iM금융만의 성공 스토리가 모여 조직 전체의 '성공 DNA'를 만들고, 나아가 '하이브리드 금융그룹'이란 비전 실현에 더 다가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4년 지방금융그룹에서 시종금융그룹으로 새 출발한 iM금융의 핵심 전략은 은행 계열사인 iM뱅크를 중심으로 한 '니치마켓(틈새시장)' 공략이다. 오랜 기간 축적된 지방금융 특유의 지역 기반 인프라와 대출 전문성을 활용해 시종금융의 진출이 미진했던 소상공인, 중소기업 시장을 공략하고, 중·저신용자를 비롯해 다양한 수요를 겨냥한 비대면 상품도 적극 공급한다.

금융권 퇴직 인력을 1인 지점장으로 활용하는 'PRM(기업금융전문가)' 제도는 주요 계열사인 iM뱅크의 주요 매출원으로 부상했다. 전국에 출범한 '거점점포'를 중심으로 방문형·맞춤형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PRM은 지난해 말 기준 1인당 대출 취급액에서 일반 행원 대비 3배 많은 대출을 취급했고, 취급한 대출의 연체율은 0.13% 수준으로 은행권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개인금융 부문에서는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적극 활용한다. 영업점 출점을 최소화해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고, 절약한 비용을 바탕으로 금리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시장에 적극 공급한다는 전략이다. 각종 '전용상품'을 앞세운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인지도를 빠르게 확보하는 가운데, 기존 거점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매출 의존도는 크게 개선됐다.

iM금융의 중·장기 목표는 '하이브리드 금융그룹'의 완성이다. 기존 거점지역인 대구·경북에서는 지역 전체를 포용하는 '지역 금융'의 역할을 지속하는 한편, 인터넷은행의 접근성과 시종은행의 대중성을 결합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앞서나간다는 목표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

/iM금융

iM금융만의 상품 차별화로 고객 공략  
니치마켓 선점... 지역 인프라 등 활용  
1인 지점장 'PRM', 주요 매출원으로  
비대면채널 적극 활용, 전용상품 출시

지역-온라인 '하이브리드 금융' 목표  
은행 영업망, 비은행 계열사로 연결  
모든 금융서비스 잇는 '심리스 금융'

전 계열사 자산 우량화, 건전성 관리  
서민금융상품으로 수익성 확보 목표  
불확실성 대응... 계열사 리스크 관리

다. 나아가 iM뱅크가 구축한 전국 단위 영업망을 기반으로 증권·보험 등 비은행 계열사의 영업이 매끄럽게 연결되는 '심리스(Seamless) 금융'의 구축 또한 iM금융이 추구하는 차세대 전략이다.

앞서 황병우 회장은 "iM금융은 은행, 증권, 보험 등 훌륭한 계열사를 갖추고 있는 만큼, 단순한 연계 영업을 넘어 고객 관점에서 모든 금융 서비스가 매끄럽게 연결되는 '심리스 iM'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 비은행 약점 극복... '지속성장'

iM금융그룹은 작년 연간 연결순이익으로 4439억원을 기록했다. 직전연도의 2208억원과 비교해 2배 넘게 성장한 규모다. 이자이익은 소폭 하락했지만, 전 계열사를 중심으로 자산 우량화와 건전성 관리 노력으로 위험노출액이 줄어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로 지난 2024년에만 연간 1600억원의 손실을 냈던 iM증권은 2025년에 760억원의 흑자를 내



대구 iM뱅크 제2본점.

며 '체질전환'에 성공했고, 여신금융사인 iM캐피탈의 매출도 같은 기간 동안 60% 이상 증가했다. 그룹 단위의 연간 총당금 전입액은 적극적인 체질 개선에 힘입어 7324억 원에서 3381억원까지 급감했다.

2배가 넘는 실적 성장에도 '지속성장'은 과제로 남았다. 지난해 그룹 전체의 이자이익 규모는 1조6559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9% 줄었고, 같은 기간 비이자이익은 3959억원을 기록해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난해 실적 성장이 그룹 차원의 대대적인 체질개선에 기인했던 만큼, 향후 성장을 위해선 매출 성장이 동반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iM금융은 지난해를 '정상화의 원년'으로 평가하고, 올해는 수익성 확보에 힘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적극적인 자산 우량화를 통해 확보한 기초체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성이 작은 서민금융상품을 적극 취급해 매출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천병규 iM금융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6일 컨퍼런스콜에서 "2025년은 정상화의 원년이였다면 2026년은 실질적인 수익성 확보의 첫 해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이 7.3%수준이었는데, 8%까지 끌어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26년부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매출 확대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가계부채 한도와 증가율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보증서가 있는 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목표치를 두고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iM금융은 올해 매출 성장에 힘쓰는 한편,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 계열사 차원의 리스크 관리도 지속한다.

박병수 iM금융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는 "거시경제 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은행 내부적으로는 단기 연체가 부실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세밀한 관리 전략을 병행할 것"이라면서 "비은행에서는 증권·캐피탈 부문에서 안전자산 증권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지속하고, 전반적인 자산 건전성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지난해 4월 서울 마곡에 개점한 iM뱅크 마곡금융센터에서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왼쪽줄 맨 끝, 당시 iM뱅크 은행장 겸직)과 강정호 iM뱅크 은행장(왼쪽줄 네번째, 당시 iM뱅크 경영기획그룹 부회장)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메트로  한줄뉴스



▲설 연휴 독주한 '왕과 사는 남자' 400만 넘고 500만 보인다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제11회 한국문화공간상 수상  
/사진 뉴스스

▲국립고궁박물관, 내달 1일부터 오전 9시30분 문연다  
▲'손메대전' 예정대로 성사되나... '부상' 메시, 훈련 복귀

▲오브라이언, 종아리 부상으로 WBC 출전 무산...김택연 대표팀 승선  
▲프로농구 KBL, 2025~2026시즌 올스타전 유니폼 경매